

2013년 12월 개정판

〈발췌번역본〉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IKV PAX
CHRISTI

2013.12

Utrecht, December 2013

IKV Pax Christi has strived to achieve the highest level of accuracy in our reporting. However, at this point, there is still a marked lack of official information available in the public domain about the use, production, transfer, and stockpiling of cluster munitions, as well as about investments in companies that produce cluster munitions. The information in this report therefore reflects official information available in the public domain known to IKV Pax Christi. We welcome comments, clarifications, and corrections from governments, compan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s, in the spirit of dialogue, and in the common search for accurate and reliable information on an important subject. If you believe you have found an inaccuracy in our report or if you can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contact us.

Authors

Roos Boer (IKV Pax Christi)
Anniek Herder (Profundo)
Suzanne Oosterwijk (IKV Pax Christi)
Michel Riemersma (Profundo)

Research by

Roos Boer (IKV Pax Christi)
Anniek Herder (Profundo)
Barbara Kuepper (Profundo)
Suzanne Oosterwijk (IKV Pax Christi)
Michel Riemersma (Profundo)

With thanks to

Werner Anderson, Laura Boillot, Stan Brabant, Cyrielle Chibaeff, Michelle Fahy, Jan Willem van Gelder, Paul Hannon, Barbara Happe, Katherine Harrison, Mark Hiznay, Erin Hunt, Jasper van der Kist, Ole Kirkelund, Thomas Küchenmeister, Marion Libertucci, Richard MacCormac, Devin Morrow, Gro Nystuen, Suengho Park, Christophe Scheire, Giuseppe Schiavello, Petra Schroeter, Frank Slijper, Susi Snyder, Miriam Struyk, Stijn Suijs, Lorel Thomas, Junko Utsumi, Esther Vanderbroucke, Hildegard Vansintjan, Mary Wareham, Luc Weyn, Wilbert van der Zeijden, and all financial institutions' representatives who provided answers to our questions about their policy.

Editor

Ms. C. Romanik

A publication by

IKV Pax Christi, the Netherlands

Lay out

Jasper van der Kist
Sigmon Visser

Cover photograph:

Germany, 15 October 2008
Brass cones dismantled from the DM1348/155 mm artillery
delivered cluster munitions.
©Werner Anderson
www.werneranderson.no

For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contact info@ikvpaxchristi.nl.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 목차 -

일러두기.....	3
요약보고서 및 권고사항.....	4
요약 도표.....	13
도입 확산탄 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31
확산탄, 그리고 오슬로 프로세스.....	31
금융기관 가지는 힘과 책임	33
우리의 연구	34
제 1 장 수치의 전당: 금융지원 및 투자.....	35
1.1 확산탄 생산기업들로 구성된 요주의 기업목록.....	35
1.1.0 도입 및 연구방법	35
1.1.1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미국)	37
1.1.2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 (중국)	39
1.1.3 한화 (대한민국).....	39
1.1.4 중국북방공업공사 (중국).....	41
1.1.5 풍산 (대한민국).....	42
1.1.6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싱가포르).....	42
1.1.7 텍스트론 (미국).....	43
1.1.8 더 이상 요주의 기업목록에 포함되지 않게 된 기업들.....	46
록히드 마틴 (미국)	46
스플라프 국립연구생산엔터프라이즈 (러시아).....	47
1.2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 <한국 금융기관 발취>.....	48
1.2.38 칸서스자산운용 (한국).....	48
1.2.40 대우증권 (한국).....	48
1.2.43 동부증권 (한국).....	48
1.2.46 유진투자증권 (한국).....	49
1.2.57 하나금융 (한국).....	49
1.2.58 한화그룹 (한국).....	50
1.2.59 한양증권 (한국).....	51
1.2.65 현대그룹 (한국).....	51
1.2.66 현대중공업 (한국)	52
1.2.72 KB 금융 (한국).....	53
1.2.74 한국산업은행 (한국).....	54
1.2.75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	55
1.2.83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한국)	56
1.2.84 미래에셋금융그룹 (한국)	56
1.2.88 국민연금공단 (한국)	56
1.2.104 삼성 (한국).....	57
1.2.109 신한은행 (한국).....	57

1.2.110 신영증권 (한국).....	58
1.2.111 SK 증권 (한국).....	59
1.2.123 동양그룹 (한국).....	59
1.2.124 트러스톤자산운용 (한국).....	59
1.2.138 우리금융 (한국).....	60
1.2.139 유리자산운용 (한국).....	60
제 2 장 명예의 전당: 투자철회를 이끌고 있는 금융기관들.....	62
2.1.0 도입 및 연구방법.....	62
국영연금기금.....	64
2.1.4 보상기금(룩셈부르크).....	64
2.1.5 미래기금(호주).....	64
2.1.6 국민연금 준비기금(아일랜드).....	65
2.1.7 뉴질랜드 연기금(뉴질랜드).....	65
2.1.8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 글로벌 (노르웨이).....	66
2.1.9 스웨덴 연기금 AP 1-4 (스웨덴).....	67
2.1.10 스웨덴 연기금 AP7 (스웨덴).....	68
미주.....	69

일러두기

*본 발췌번역본은 IKV 팩스크리스티가 발표한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 2013년 12월 개정판 중 요약보고서, 요약도표, 제1장 수치의 전당^{Hall of Shame}에 포함된 요주의 기업목록, 한국 금융기관, 제2장 명예의 전당 중 국영연금 관련 부분을 무기제로가 발췌 번역한 것이다. 원문 및 전문 보고서는 IKV 팩스크리스티 웹사이트 또는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OP EXPLOSIVE INVESTMENTS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 웹사이트:

<http://www.stopexplosiveinvestments.org/report>



IKV 팩스크리스 웹사이트:

<http://www.ikvpaxchristi.nl/en/home>



무기제로는 전쟁을 통해 이익을 보는 전쟁수혜자(War profiteer)의 무기거래를 감시하고 무기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활동하는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무기 생산과 수출 문제에 대해 모니터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발표해 왔습니다. 현재는 확산탄 금지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방 감시, 군축전시회, 정책 제언, 캠페인, 직접행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소: 서울 마포구 망원동 422-9 (3층)
- 전화번호: 02-6401-0514
- 이메일: wzeropeace@gmail.com
- 홈페이지: www.wzero.org

요약보고서 및 권고사항

IKV 팩스크리스티^{Pax Christi}(네덜란드)와 페어핀^{FairFin}(벨기에, 구 네트워크 플렌데런)ⁱ이 「확산탄 세계 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표한 것은 2009년 10월이었다.¹ 이 보고서는 확산탄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철회한 금융기관들, 확산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최신 현황을 다룬 보고서였다. 최신 현황을 반영한 개정판 보고서는 각각 2010년 4월, 2011년 5월, 2012년 6월²에 발표된 바 있다. IKV 팩스크리스티가 작성한 2013년 12월자 본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 내용을 최신 정보로 수정한 것이다.³

확산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확산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한다. 총 94개국이 2008년 12월 3 ~ 4일 개최된 오슬로 조인식에서 협약에 서명했다. 동 협약은 2010년 8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확산탄금지협약 제1조 제1(c)항은 "각 당사국은 누구에게도 본 협약 당사국에게 금지된 활동에 가담하도록 원조, 장려,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확산탄금지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 CMC}이 자체 정책문서³에서 밝힌 바 있듯이, 확산탄의 생산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원조", "장려"에 해당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당사국의 협약 이행이 자동적으로 확산탄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현재 확산탄 금지를 향한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협약에 서명한 많은 국가들이 현재 자국 이행 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있거나 이미 협약 이행에 들어갔다.

"각 당사국은
누구에게도 협약
당사국에게 금지된
활동에 가담하도록
원조, 장려,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확산탄금지협약이 서명을 위해 개방되기 전부터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무차별적 살상무기인 확산탄의 속성 자체에서 기인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금융기관들이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데 반드시 확산탄금지협약이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2008년 5월 협약에 대한 교섭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해 확산탄에 대한 모든 투자를 금지시켰지만, 여타 금융기관들은 무차별 살상무기인 확산탄의 생산을 계속 지원해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직도 확산탄의 생산 및 투자에 관해 공개된 공식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 까닭에 이 보고서는 이 부분 관련 정보를 전부 망라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의 각 장 첫머리와 요약보고서에 우리가 수행한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 담긴 정보들이 각 국가, 금융기관, 시민사회를 자극해, '확산탄이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인도적 피해 종식'이라는 확산탄금지협약의 목표 달성을 촉진시킬

ⁱ 2012년 3월, 네트워크 플렌데런 ^{Netwerk Vlaanderen}은 단체명을 페어핀 ^{FairFin}으로 변경했다. <http://www.fairfin.be> 참조.

ⁱⁱ 2013년 페어핀과 IKV 팩스크리스티는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제하의 보고서 공동 출판을 중단했다. 2013년 12월자 본 보고서는 IKV 팩스크리스티가 발표했으며, 본 보고서는 페어핀과 협력 하에 발표된 지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009년 10월에 이 보고서 초판이 발행된 이후 긍정적인 발전들이 있었다. 많은 나라에서 시민사회가 금융기관 및 정부 관료들과 연계해 투자철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부 경우 금융기관이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으며, 국가가 나서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에 대한 법률을 채택하기도 했다.⁴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도 할 일은 많이 남아있다. 확산탄으로 인한 인류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각국 법률에 확산탄금지협약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법률이 도입될 때까지는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확산탄 투자를 철회할 도의적인 의무를 가진다. 금융기관들이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무차별 살상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돕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이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돕는 것이다."

더블린에서 확산탄금지협약 문안에 대한 협상이 타결된 이후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많은 금융기관들이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목록은 이 보고서의 첫 장인 "수치의 전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치의 전당 Hall of Shame

수치의 전당 Hall of Shame에는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이번 연구의 첫 단계는 확산탄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업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조사 기관인 *프로펀도(Profundo)*는 NGO 보고서, 확산탄 투자를 금지하는 금융기관의 투자배제 대상 목록, 생산 기업의 보고서, 미국 정부와의 계약 내용, 기업과 투자자들 간의 연락 내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참조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목록 중에서 우리는 우리 연구 목적으로 적용할 최종 목록을 선별했다. 우리는 이 목록을 "요주의 기업 목록 Red Flag List"이라고 부른다. 이 "요주의 기업 목록"에 모든 확산탄 생산 기업이 포함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라. 이 명단에는 제1장에 나열한 기준들을 만족시키며 명확히 식별가능한 금전적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만 포함되었다. 현 요주의 기업 목록에는 7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목록을 기준으로 중국항공과기집단공사(중국) China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가 올해 목록에 추가되었으며 록히드마틴(미국) Lockheed Martin의 경우 확산탄(핵심 부품)의 생산을 중단했다고 확인해주었기 때문에 목록에서 제외되었다.⁵ 스플라프 국립연구생산엔터프라이즈(러시아) Splav State Research and Production Enterprise는 2012년 요주의 기업 목록에 포함되었지만 올해 개정보고서에 포함될만한 금전적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스플라프는 여전히 확산탄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주의 기업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우리는 투자자를 확산탄 생산기업과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에 관계 없이 모든 재정적 연계를 투자로 간주한다.

- 투자자가 생각하는 확산탄 생산 기업의 비중
- 투자 포트폴리오상의 투자 중요도
- 기업의 매출에 확산탄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
- 확산탄 생산 기업의 그외 활동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한 금융 서비스가 확산탄 생산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러한 정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한 금융 서비스가 확산탄 생산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기 생산 기업의 경우 일반 회사 자본에서 확산탄 생산 설비 자금을 대는 경우가 보통이다. 우리는 여태까지 확산탄 생산 설비에 특정한 금융 지원 프로젝트를 발견한 적이 없었다. 기업이 그룹 내의 자본금을 합법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일반적인 기업 대부 계약 내용에 대부 받거나 투자 받은 자금을 확산탄 생산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거나 금융지원 받은 자금을 민간(비군사) 프로젝트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는 자금이 확산탄 생산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요주의 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과 금전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금융기관 139곳의 전체 명단은 요약 도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표에는 이 금융기관들이 생산 기업들과 맺고 있는 금융 관계의 종류들이 명시되어 있다. 네덜란드 조사 기관인 프로펀도는 주식 거래 기록, 금융기관 및 확산탄 생산 기업의 출간 자료,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얻은 금융기관들의 목록을 제공했다.ⁱⁱⁱ

2012 수치의 전당에서는 137개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 102개 금융기관은 2013 수치의 전당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35개 기관은 제외되었다. 1개 금융기관의 경우 2012년 보고서에서 채권보유에 대한 사항에 오류가 있었던 관계로 이번에는 제외되었다.^{iv} 102개 금융기관 중 1개 금융기관은 지난해 수치의 전당에 포함되어 있던 모기업 항목에 포함되었고 다른 1개 금융기관의 경우 새롭게 수치에 전당에 추가된 모기업의 하위 항목에 포함되었다.^v 그 경우 수치의 전당에는 101개 금융기관이 남게 된다.

올해 수치의 전당에서 제외된 34개 금융기관은 다음 3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요주의 기업 목록에서 록히드마틴이 제외되면서 록히드마틴에 투자하던 12개 금융기관이 제외되었다.
- 2012년 요주의 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 중 하나 이상의 기업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했던 15개 금융기관의 경우, 2013년 투자 금액이 미국 기업의 경우 1% 미만, 아시아 기업의 경우 0.1% 미만으로 떨어졌다.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포함된 금융기관들은 요주의 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일부 매도했을 뿐이며 우리 기준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주식이나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ⁱⁱⁱ Stock exchange filings for US companies are mostly derived from 10K-Wizard, a commercial variant of the free Edgar database. This database contains information that the companies provided to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We also used the Thomson ONE database, Bloomberg database and archives from EuroWeek and other trade journals.

^{iv} Liechtensteinische Landesbank (LLB) (Liechtenstein) confirmed to Profundo in October 2013 that it has not held bonds issued by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since 2007. LLB was erroneously included in the 2012 Hall of Shame due to incorrect reporting in financial data sources.

^v Mellon Capital Management as part of Bank of New York Mellon, Continental Insurance Company as part of Loews Corporation.

- ▶ 7개 금융기관의 경우 요주의 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대출 또는 투자금융 형태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수치의 전당에서 제외되었다. 이 금융기관들의 대출 및 투자금융 서비스는 2010년 6월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 이후로 해당 금융기관들은 요주의 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추가적인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없다. 여기에는 2012년 보고서에서 스플라프 국립연구생산엔터프라이즈(러시아)와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던 스페르은행이 포함된다.

2013 수치의 전당에는 139개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 수치의 전당에 포함되었던 기존 101개 금융기관 이외에 38개 금융기관이 새롭게 진입한 것이다.

2013 수치의 전당에 신규 추가된 38개 금융기관들은 다음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33개 금융기관의 경우 2012년 요주의 기업 목록에도 포함되었던 기업들(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한화, 중국북방공업, 풍산,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텍스트론) 중 하나 이상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원을 제공했기 때문에 수치의 전당에 포함되었다.
 - 2012년 보고서 출판 이후 대출 또는 투자금융서비스 제공
 - 2012년에 주식 또는 채권 신규 취득
 -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하던 주식이나 채권 보유량의 비율이 미국 기업 기준 1%, 아시아 기업 기준 0.1% 이상으로 상승
- ▶ 5개 금융기관의 경우 다음의 이유로 수치의 전당에 포함되었다.
 - 2013년에 새롭게 요주의 기업 목록에 포함된 중국향천과기집단공사(중국)에 금융지원 제공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수치의 전당에 포함된 139개 금융기관은 7개 확산탄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미화 총 240억 달러 이상을 다음과 같이 투자했다.

1. 미화 23억 달러 가량의 대출금 제공
2. 미화 61억 달러 가량의 투자금융 서비스 제공
3. 미화 160억 달러 가량의 주식 및 채권 보유 또는 운용

명예의 전당^{Hall of Fame} 및 명예의 전당 후보^{runners-up}

보고서의 두 번째 파트는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금융기관들에 초점을 맞춘 명예의 전당 부분이다. 확산탄금지협약이 서명 절차에 들어가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자사의 정책을 수정했다. 확산탄에 대한 정책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을 찾아내기 위해 *IKV 팩스크리스트*와 네덜란드 연구기관인 *프로펀도*는 NGO 보고서, 사전조사^{screening} 에이전시가 제공한 정보, 금융기관의 보고서 및 홈페이지, 세계 각국 활동가들로부터 얻은 정보, 기타 공공 자료 등 다양한 출처의 자료들을 조사했다. 프로펀도는 금융기관의 정책을 수집해 해당 기관들의 확산탄 관련 정책을 평가했다. *IKV 팩스크리스트*는 해당 금융기관이 명예의 전당이나 명예의 전당 후보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투자정책은 은행 그룹 차원에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그룹이 직·간접적으로 자회사들을 감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룹의 정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금융기관들의 목록은 전부를 망라한 것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환영한다.

연구 결과, 공개 도메인에서 영어/네덜란드어로 작성된 67개 금융기관의 확산탄 관련 정책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부 경우, 영어/네덜란드어로 기록되지 않은 공개 도메인에 있는 투자철회 정책의 번역본을 받아 볼 수도 있었다. 이 67개 금융기관 중 31개가 명예의 전당에 포함되었다. 이 31개 금융기관은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모든 투자를 금지했다. 요약 도표에 이 기관들에 대한 개괄적 정보가 들어있다.

"우리는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노력을
높이 산다."

조사 대상이었던 67개 금융기관 중 나머지 36개는 확산탄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허점들이 존재했다. 우리는 *명예의 전당 후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확산탄 투자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일부 미비점이 있는 금융기관들의 상황을 강조했다. 우리는 이 금융기관들의 노력을 높이 사지만, 아직 이들이 명예에 전당에 오르려면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예의 전당 후보들의 주된 미비점들은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의 직접 개입만을 고려, 제3자 개입에 의한 투자활동 제외
- 민간 목적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외
- 인덱스 펀드 제외

이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점차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슬로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을 당시 단지 소수의 금융기관들만이 확산탄 생산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확산탄 생산 기업과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노베틱(Novethic)*이 2011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 기업^{vi} 중 거의 80%가 논란이 되는 무기에 대한 투자를 평판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⁶ *노베틱*이 2012년에 진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논란이 되는 무기(대인지뢰 및 확산탄)에 투자를 제외하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⁷

^{vi} A representative sample of asset owners across 11 European countries was surveyed on how they perceive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criteria in the way they manage their investments. The 259 respondents break down relatively evenly among private insurers, mutual insurance companies and pension funds, both public or private, corporate or non corporate. Their assets totalise nearly €4,540 billion.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들은 본 보고서의 "명예의 전당"과 "명예의 전당 후보"에 반영되어 있다. 이제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확산탄 생산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행, 소규모 연금기금,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만이 아니다. *BNP 파리바, HSBC,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등의 세계적인 금융 기업도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있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확산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만 확산탄 투자 금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이들의 정책은 일반적 기업 목적을 위해 투자되는 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하거나 대부해준 자금이 확산탄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는 이상, 이들의 정책에는 커다란 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룹 내에서 자기 자본을 합법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만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기관들은 명예의 전당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기관들에 대한 평가는 진행했다. 우리는 이들이 첫 발걸음을 떤 것을 환영하며 자사의 투자 대상에서 확산탄 생산 기업들을 완전히 배제시킬 것을 권고한다.

2012년 6월에 발표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5개 금융기관이 명예의 전당에 새롭게 진입했다. 이들 모두는 네덜란드 소재 금융기관들이었다. 보험회사인 *A.S.R.*과 멘지스, 자산운용사인 *APG*와 연금기금인 *PFZW*Care and Welfare Pension Fund과 *SPW*Pension Fund Foundation for Housing Cooperatives의 사례는 금융기관이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모든 종류의 투자를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해와는 다르게 웨스트 엘비(독일)의 경우는 명예의 전당에서 탈락했다. 웨스트 엘비는 2012년에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법적승계자인 포르티곤은 어떠한 종류의 금융지원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웨스트 엘비의 확산탄 관련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다.

2012년 6월 보고서 출판 이후 8개 금융기관이 새로이 명예의 전당 후보 대열에 합류했다. 이중에는 바클레이(영국), 도이체방크(독일), 제네랄리(이탈리아), 미쯔이 스미토모 신탁은행(일본)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행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일본 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오른 미쯔이 스미토모 신탁은행을 환영한다. 새롭게 명예의 전당 후보에 등록된 금융기관은 *PFA* 연금(덴마크), *스웨드뱅크*(스웨덴), *벤 란쇼트*(네덜란드), *폰토벨*(스위스)이다.

지난 해와 달리 우리는 벨피우스 은행 보험(벨기에)를 명예의 전당 후보에서 제외시켰다. 해당 기관은 2012년 여름까지 본사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벨피우스 은행 보험이 해당 정책을 공개해 다음 보고서에서는 다시 포함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2년에 이미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올랐던 금융기관 3개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들은 비록 자사 정책을 상당부분 개선했지만 아직은 명예의 전당 후보에 남아있다. *아베엔**ABN* *암로*(네덜란드), *아에곤*(네덜란드), *유니크레디트*(이탈리아)는 모두 자사 정책에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이들이 명예의 전당 입성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정비되어야 할 정책상 허점들이 일부 존재한다. 우리는 위 금융기관들이 이른 시일 내 자사 정책을 수정해 내년도 보고서 발간시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인식 증진 및 투명성 개선

2009년 10월에 첫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로 우리는 시민단체 활동가들, 국가,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9년 10월, *확산탄금지연합*은 "확산탄 투자철회(Stop Explosive Investments)"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를 촉구했다. *확산탄금지연합*은 금융기관들에게 확산탄과 관련한 명확한 윤리 투자 지침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으며, 각국 정부에는 확산탄 투자 금지 법률 입안을 요구했다. 캠페인 출범 이후 약 20개국에서 투자철회 캠페인이 진행됐다.^{vii}

이러한 캠페인 노력에 힘입어 금융기관들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이들의 투자철회 정책에 대한 설명이 늘어났다. 더 나아가 이러한 캠페인은 투자철회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금융기관들이 그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자극했다. 세계 곳곳의 캠페인, 회담, 연구, 언론 보도 등으로 이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풍부하도록 증가했으며, 무기 생산 기업들의 투명성이 증대되기도 했다.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문제를 의식함에 따라 우리 질의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런 정보들은 우리 연구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활발한 캠페인 활동들

세계 곳곳에서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시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이 벌어졌다. 아래에는 2012년 보고서 발간 이후의 캠페인 사례 중 일부를 무작위로 나열한다.

호주에서는 활동가들이 호주 커먼웰스 은행의 자산운용부문인 콜로니얼 퍼스트 스테이트 글로벌 자산운용이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정책을 이행하기로 한 조치를 환영했다. 우리는 금융기관 그룹차원의 정책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주 커먼웰스 은행이 자사의 자산운용부문의 모범을 따라 확산탄 생산기업을 배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를 희망한다.

프랑스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인덱스 펀드를 예외로 두고 있다는 점에 활동가들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 프랑스 자산운용협회(AFG)는 지뢰와 확산탄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동 협회는 자산운용가들에게 확산탄을 제외하는 인덱스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으며 프랑스 자산운용기관에 확산탄을 제외하는 인덱스를 생성할 것을 요구했다. 동 협회는 또 인덱스 제공자들이 모든 인덱스펀드에서 확산탄 관련 인덱스를 제외하도록 권장하는 유럽 및 국제적 차원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⁸

^{vii} For more information on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stop explosive investments, see: www.stopexplosiveinvestments.org.

한국의 활동가들은 국민연금공단의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를 중단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출범시켰다. 이 캠페인은 2013년 4월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더불어 출범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총 3,400명이 국민연금의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2개의 탄원 캠페인에 참여했다.⁹

영국에서 강력한 투자철회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영국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거나 지난 해 정책을 수정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바클레이는 금년도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는 바클레이가 확산탄 생산기업을 배제하기로 했다는 점을 높이 사며 자사 정책을 강화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수 있기를 권한다.

국가별 모범사례

확산탄금지연합은 확산탄금지협약 상의 원조 금지 규정이 확산탄 투자 금지를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있다.^{xiii} 점차 많은 수의 국가들이 협약이 확산탄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2012년 보고서 발간 이후 4개국(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사모아, 스위스)이 확산탄 생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또 2012년 보고서 발간 이후 또 캐나다, 콩고민주공화국(DRC), 콩고공화국, 가나, 니제르, 노르웨이 이상 6개국이 확산탄 투자가 확산탄금지협약에 의거해 금지되었거나 또는 그렇게 간주된다는 내용의 해석성명(interpretive statement)을 발표한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보고서작성 시점인 지금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사모아, 스위스 등 총 9개국이 확산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한 9개국 이외에도 2013년 5월 27일에 덴마크 정부가 덴마크 기업책임위원회에 대인지뢰금지협약 및 확산탄금지협약과 관련해 책임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점이다.¹⁰

아직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를 입법화하지는 않았지만 확산탄금지협약이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국가도 총 27개국에 달한다. 캐나다, 카메룬,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DRC), 콩고공화국,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프랑스, 가나, 과테말라, 교황청, 헝가리, 라오스,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타, 멕시코, 니제르, 노르웨이, 르완다, 세네갈, 슬로베니아, 영국, 잠비아는 확산탄금지협약 상 (직접) 투자를 금지되는 형태의 원조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사모아, 스위스의 입법 사례는 확산탄금지협약의 서명국, 당사국, 비당사국 모두가 국내법으로 확산탄 생산 기업 투자 금지를 금지시키는 데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xiii}Cluster Munition Coalition, "CMC Policy Papers on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May 2010, available at www.stopclustermunitions.org/wp/wp-content/uploads/2010/06/3a-cmc-policy-papers.pdf, last viewed 20 September 2013; Cluster Munition Coalition, "Briefing Paper on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English)", September 2013, available at www.stopclustermunitions.org/wp/wp-content/uploads/2013/09/brief_eng13-september-2013_pdf.pdf, last viewed 21 September 2013.

더 많은 국가들이 확산탄금지협약 제1조제1항(c)에 확산탄 투자 금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사모아, 스위스의 입법 사례는 확산탄금지협약의 서명국, 당사국, 비당사국 모두가 국내법으로 확산탄 생산 기업 투자 금지를 금지시키는 데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

권고사항

-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협약의 제1조1항(c)에 따른 원조 금지로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국가들은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국내법을 입안해야 한다. 이는 금융기관들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확산탄금지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 금융기관들은 확산탄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과의 모든 재정적 연계를 끊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투자가 확산탄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에 확산탄 생산 기업의 민수 목적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텍스펀드과 같은 제3자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어떠한 예외도 두어서는 안 된다. 정책은 확산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만을 거절토록 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 금융기관들은 확산탄 생산 기업에 투자 중단 결정의 이유가 확산탄 때문이라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확산탄 생산 기업이 투자 철회 결정을 반복시키기 희망하는 경우 확산탄 생산을 중단할 시한을 정해줄 수도 있다. 시한을 넘겨서 여전히 확산탄을 생산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이 확산탄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확산탄 생산과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는 모든 신규 투자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
- 금융기관들은 투자 철회 정책을 상업은행 업무, 투자은행 업무, 자산운용 등 모든 활동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한 모든 활동은 확산탄의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새로운 활동으로 투자 펀드 운용 상의 변동이 발생할 시에는 투자자들이 이를 고지 받아야 하며 펀드 투자 중단 시한이 주어져야 한다. 시한 이후에는 운용 전략을 변경하고 확산탄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과 채무는 매각되어야 한다.

요약 도표

수치의 전당

다음의 표는 금융기관들이 요주의 기업 목록에 등록된 확산탄 생산기업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유형을 나타낸다.

B = (전환)사채의 보유 혹은 운용, L = 대출편의 제공, S = 주식의 보유 혹은 운용, Y = 발행된 채권의 인수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중국항공과기집단공사 China Aerospace Science & Technology (중국)	한화 Hanwha (한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텍스트론 Textron (미국)
아베르딘 자산운용 Aberdeen Asset Management	영국						S	
애디지 캐피탈 매니지먼트 Adage Capital Management	미국							S
어드벤처 캐피탈 매니지먼트 Advent Capital Management	미국	B						
중국농업은행 Agricultural Bank of China	중국				Y			
AIG	미국							B
알리안츠 Allianz	독일	B,S				S		
올스테이트 Allstate	미국	B						
아메리칸 센추리 인베스트먼트 American Century Investments	미국							S
아메리칸 패밀리 생명보험 American Family Life Assurance	미국						B	
미국상호보험연합 American United Mutual Insurance	미국							B
APS 자산운용 APS Asset Management	싱가포르					S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중국항공과기집단공사 China Aerospace Science & Technology (중국)	한화 Hanwha (한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텍스트론 Textron (미국)
AQR 캐피탈 매니지먼트 AQR Capital Management	미국	S						
하포엘림 은행 Bank Hapoalim	이스라엘	L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Bank of America	미국	L,Y						L,Y
북경은행 Bank of Beijing	중국		Y		Y			
중국은행 Bank of China	중국		Y		Y			
교통은행 Bank of Communications	중국		Y		Y			
뱅크 오브 뉴욕 멜론(BNY멜론) Bank of New York Mellon	미국	L,S		S		S		L,Y,S
비비앤티 BB&T	미국	L						
블랙록 BlackRock	미국	S		S		S	S	S
BNP 파리바 BNP Paribas	프랑스	L,B						
BPCE	프랑스							B
칼라모스 Calamos Holdings	미국	B						
캐피탈 그룹 Capital Group	미국						S	S
칼슨 캐피탈 Carlson Capital	미국	B						
창화상업은행 Chang Hwa Commercial Bank	대만	L						
중국건설은행 China Construction Bank	중국		Y		Y			
국가개발은행 China Development Bank	중국				Y			
중국광대은행 China Everbright Bank	중국		Y		Y			
중국인수보험 China Life Insurance	중국		Y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중국항공과기집단공사 China Aerospace Science & Technology (중국)	한화 Hanwha (한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텍스트론 Textron (미국)
중국초상은행 China Merchants Bank	중국		Y		Y			
중국민생은행 China Minsheng Bank	중국				Y			
중국증권 China Securities	중국		Y					
중신증권 CITIC Group	중국		Y		Y			
시티그룹 Citigroup	미국							L,Y
클래리베스트 자산운용 Clarivest Asset Management	미국					S		
CNO 파이낸셜 그룹 CNO Financial Group	미국							B
칸서스 자산운용 Consus Asset Management	한국			S		S		
크레디트 시위스 Credit Suisse	스위스						B	
대우증권 Daewoo Securities	한국			Y				
도이체 банк Deutsche Bank	독일	S		S				L
디멘셔널 펀드 어드바이저스(DFA) Dimensional Fund Advisors	미국	S		S		S		
동부증권 Dongbu Securities	한국			Y				
드레먼 밸류 매니지먼트 Dreman Value Management	미국	S						
이튼밴스 Eaton Vance	미국			S				B
유진투자증권 Eugene Investment & Securities	한국			Y				
피델리티 Fidelity Investments	미국	B					B	S
FIM 코퍼레이션 FIM Corporation	핀란드						B	
퍼스트 이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미국	S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중국항공과기집단공사 China Aerospace Science & Technology (중국)	한화 Hanwha (한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텍스트론 Textron (미국)
First Eagle Investment Management								
퍼스트 파이낸셜 First Financial	대만	L						
제너럴 일렉트릭(GE) General Electric	미국	L						
젠워스 파이낸셜(GNW) Genworth Financial	미국							B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	미국	S				S		L,Y,S
그람탐 메이요 반 오텔루(GMO) Grantham Mayo Van Otterloo & Co	미국			S			S	
가디언 생명보험 Guardian Life Insurance	미국	B						
구오타이 주난 증권 Guotai Junan Securities	중국				Y			
하나금융 Hana Financial	한국			L,Y		Y		
한화그룹 Hanwha Group	한국			Y,S		S		
한양증권 Hanyang Securities	한국			Y				
하트포드 파이낸셜 Hartford Financial Services Group	미국							B
헨더슨 글로벌 인베스터스 Henderson Global Investors	미국			S				
홍원증권 Hong Yuan Securities	중국		Y					
호치키스 앤 와일리 캐피탈 매니지먼트 Hotchkis & Wiley Capital Management	미국	S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중국항공과기집단공사 China Aerospace Science & Technology (중국)	한화 Hanwha (한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텍스트론 Textron (미국)
후아난 파이낸셜 Hua Nan Financial	대만	L						
현대그룹 Hyundai Group	한국			Y				
현대중공업 Hyundai Heavy Industries	한국			Y		S		
중국산업은행 Industrial Bank	중국		Y					
중국공상은행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ICBC)	중국		Y		Y			
인베스코 Invesco	영국 ^{ix}	B						S
이리디안 자산운용 Iridian Asset Management	미국	S						
JP 모건 체이스 JP Morgan Chase	미국	L,B						L,Y
KB금융 KB Financial	한국			L,Y		Y,S		
키뱅크 Keybank	미국	L						
한국산업은행 Korea Development Bank	한국			Y		Y		
한국투자금융지주 Korea Investment	한국			Y,S		Y,S		
라자드 Lazard	미국	B						
레그 메이슨 Legg Mason	미국			S		S		
뢰스 Loews Corporation	미국							B
LSV 자산운용 LSV Asset Management	미국	S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Manulife Financial	캐나다					S		
매사추세츠 뮤추얼 생명보험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	미국	B						B

^{ix} Invesco has headquarters in Bermuda, an overseas territory of the United King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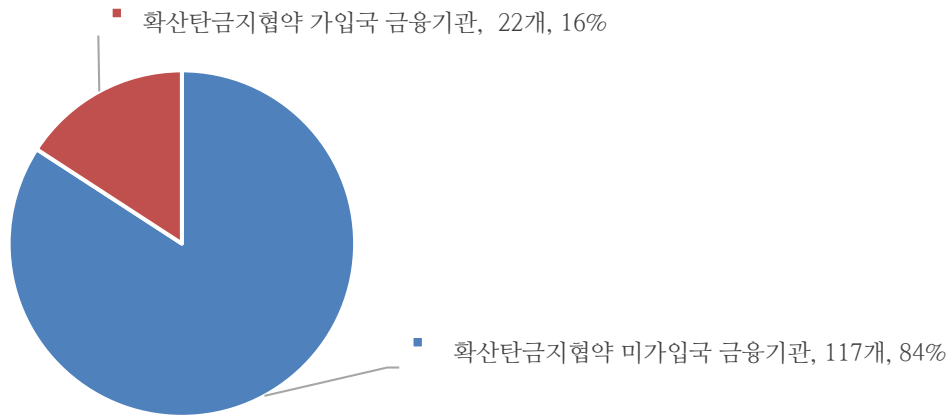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중국항공과기집단공사 China Aerospace Science & Technology (중국)	한화 Hanwha (한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텍스트론 Textron (미국)
매슈스 인터내셔널 캐피탈 매니지먼트 Matthews International Capital Management	미국						S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 Midas Asset Management	한국					S		
미래에셋 금융그룹 Mirae Asset Financial Group	한국			S		S		
미즈비시 UFJ 파이낸셜 Mitsubishi UFJ Financial	일본	L,Y						L,Y
미즈호 은행 Mizuho Bank	일본	L						
모건 스탠리 Morgan Stanley	미국							L,Y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	한국			S		S		
뉴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Newton Investment Management	영국						S	
뉴욕생명보험 New York Life Insurance	미국	B						B
노던 트러스트 Northern Trust	미국	B						L,S
누빈 인베스트먼트 Nuveen Investments	미국	B						
올드 뮤추얼 Old Mutual	영국	S		S		S		
중국인민보험공사 People's Insurance Company (Group) of China (PICC)	중국				Y			
피플스 유나이티드 파이낸셜 People's United Financial	미국	L						
PNC 파이낸셜 PNC Financial	미국	L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중국항공과기집단공사 China Aerospace Science & Technology (중국)	한화 Hanwha (한국)	중국복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텍스트론 Textron (미국)
파워 코퍼레이션 오브 캐나다(PCC) Power Corporation of Canada	캐나다						S	
프린시플 파이낸셜 Principal Financial	미국	S						B
프로스펙터 파트너즈 Prospector Partners	미국	B						
푸르텐셜 Prudential	영국						B	S
푸르텐셜 파이낸셜 Prudential Financial	미국	B,S						B
캐나다왕립은행(RBC) Royal Bank of Canada	캐나다	L,Y						
스코틀랜드왕립은행 Royal Bank of Scotland	영국	L,Y						
삼성 Samsung	한국			Y,S		S		
슈로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Schroders Investment Management	영국						S	
국해증권 Sealand Securities	중국		Y					
셱크만 캐피탈 Shenkman Capital Management	미국	B						
신은만국증권 Shenyin & Wanguo Securities	중국		Y					
신한은행 Shinhan Bank	한국			Y		Y		
신영증권 Shinyoung Securities	한국					S		
SK증권 SK Securities	한국			Y		Y		
스탠더드 생명 Standard Life	영국						S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중국항공과기집단공사 China Aerospace Science & Technology (중국)	한화 Hanwha (한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텍스트론 Textron (미국)
위스콘신연기금 투자위원회 State of Wisconsin Investment Board	미국			S				
스테이트 스트리트 State Street	미국	S		S		S	S	S
스미토모 미츠이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일본							Y
선 라이프 파이낸셜 Sun Life Financial	캐나다							B
선트러스트 뱅크 SunTrust Bank	미국	L,Y						
티로우 프라이스 T. Rowe Price	미국							S
교사보험연금협회 Teachers Insurance & Annuity Association (TIAA- CREF)	미국	S,B				S		S
테마섹 Temasek Holdings	싱가포르						S	
칼라일 그룹 The Carlyle Group	미국							S
런던 컴퍼니 The London Company	미국	S						
동양증권 TongYang Group	한국			Y		S		
트러스턴 자산운용 Truston Asset Management	한국					S		
UBS	스위스			B				
유나이티드 오버시 뱅크 United Overseas Bank	싱가포르	L					B	
유나이티드 서비스 오토모바일 어소시에이션(USAA) United Services Automobile	미국							B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lliant Techsystems (미국)	중국항공과기집단공사 China Aerospace Science & Technology (중국)	한화 Hanwha (한국)	중국북방공업 Norinco (중국)	풍산 Poongsan (한국)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텍스트론 Textron (미국)
Association								
유넘 Unum Group	미국	B						
US뱅크 US Bancorp	미국	L,Y						
벵가드 Vanguard	미국	S		S		S	S	S
베리타스 자산운용 Veritas Asset Management	영국						S	
웰즐리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 Wellesley Investment Advisors	미국	B						
웰링턴 매니지먼트 컴퍼니 Wellington Management Company	미국							S
웰스 파고 뱅크 Wells Fargo Bank	미국	L,Y						
웨스턴 앤 서던 뮤추얼 Western & Southern Mutual	미국	S						
윌리엄 블레어 앤 컴퍼니 William Blair & Company	미국						S	
윌리엄스 캐피탈 Williams Capital	미국							Y
우리금융 Woori Financial	한국			Y		Y		
유리자산운용 Yurie Asset Management	한국					S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들의 소속 국가 현황



수치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이 소속된 나라	금융기관 수
캐나다	4
중국	19
핀란드	1
프랑스	2
독일	2
이스라엘	1
일본	3
싱가포르	3
한국	23
스위스	2
대만	3
영국	9
미국	67
합계	139

명예의 전당

다음의 표는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명예의 전당에 오른 모든 금융기관들을 간략히 정리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자사의 정책을 발표했나?	확산탄 생산기업을 제외하나?	모든 확산탄 생산기업을 제외하나? (어떠한 유형이든 예외없이)	해당 정책을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에 적용하나?	모든 기업활동이 제외되었나?
공무원연금 ABP	네덜란드	○	○	○	○	○
국민연금 APG	네덜란드	○	○	○	○	○
ASN 은행 ASN Bank	네덜란드	○	○	○	○	○
국영보험 A.S.R.	네덜란드	○	○	○	○	○
보충연금 ATP	덴마크	○	○	○	○	○
방카 에티카(윤리은행) Banca Etica	이탈리아	○	○	○	○	○
BPF 보우 BPF Bouw	네덜란드	○	○	○	○	○
DNB 은행	노르웨이	○	○	○	○	○
에티아스 Ethias	벨기에	○	○	○	○	○
포크잠 Folksam	스웨덴	○	○	○	○	○
보상기금 Fonds de Compensation	룩셈부르크	○	○	○	○	○
미래기금 The Future Fund	호주	○	○	○	○	○
KLP	노르웨이	○	○	○	○	○
KPA	스웨덴	○	○	○	○	○
멘시스 Menzis	네덜란드	○	○	○	○	○
국민연금준비기금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아일랜드	○	○	○	○	○
뉴질랜드연기금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뉴질랜드	○	○	○	○	○
노르웨이정부연기금 - 글로벌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노르웨이	○	○	○	○	○
교통연기금 Pensioenfonds Vervoer	네덜란드	○	○	○	○	○
사회보장연기금	네덜란드	○	○	○	○	○

명예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자사의 정책을 발표했나?	확산탄 생산기업을 제외하나?	모든 확산탄 생산기업을 제외하나? (어떠한 유형이든 예외없이)	해당 정책을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에 적용하나?	모든 기업활동이 제외되었나 ?
Pensioenfonds Zorg en Welzijn						
PGGM	네덜란드	○	○	○	○	○
필립스 연기금 Philips Pension Fund	네덜란드	○	○	○	○	○
PME	네덜란드	○	○	○	○	○
PNO 미디어 PNO Media	네덜란드	○	○	○	○	○
SNS 레알 SNS REAAL	네덜란드	○	○	○	○	○
철도연기금 Spoorwegpensioenfonds	네덜란드	○	○	○	○	○
SPW	네덜란드	○	○	○	○	○
스토어브랜드 그룹 Storebrand Group	노르웨이	○	○	○	○	○
스웨덴연기금 AP1-4 Swedish Pension Funds AP1 - 4	스웨덴	○	○	○	○	○
스웨덴연기금 AP7 Swedish Pension Fund AP7	스웨덴	○	○	○	○	○
트리오도스 은행 Triodos Bank	네덜란드	○	○	○	○	○

*명예의 전당 및 명예의 전당 후보에 포함된 금융기관들이 소재한 국가들은 모두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명예의 전당(국가별 현황)

명예의 전당에 오른 금융기관이 소속된 나라	금융기관의 수
호주	1
벨기에	1
덴마크	1
아일랜드	1
이탈리아	1
룩셈부르크	1
뉴질랜드	1
노르웨이	4
스웨덴	4
네덜란드	16
합계	31

명예의 전당 후보

다음의 표는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오른 모든 금융기관들을 간략히 정리했다.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오른 금융기관	소속 국가*	자사의 정책을 발표했나?	확산탄 생산기업을 제외하나?	모든 확산탄 생산기업을 제외하나? (어떠한 유형이든 예외 없이)	해당 정책을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에 적용하나?	모든 기업활동이 제외되는가?
아베엔 암로 ABN Amro	네덜란드	○	○	○		○
아에곤 Aegon	네덜란드	○	○	○		○
아비바 Aviva	영국	○	○	○		○
악사 AXA	프랑스	○	○	○		○
바클레이스 은행 Barclays	영국	○	○	○		○
BBVA	스페인	○	○	○		○
BNP 파리바 BNP Paribas	프랑스	○	○	○		○
코메르츠뱅크(상업은행) Commerzbank	독일	○	○	○		○
협동조합 금융서비스 Co-operative Financial Services	영국	○	○	○		○
크레디 아그리콜 Crédit Agricole	프랑스	○	○	○		○
크레디트 스위스 Credit Suisse	스위스	○	○	○		○
단스케 은행 Danske Bank	덴마크	○	○	○		○
도이체 뱅크 Deutsche Bank	독일	○	○	○		○
제네랄리 Generali	이탈리아	○	○	○		○
HSBC	영국	○	○	○		○
ING	네덜란드	○	○	○		○
인테사 상파올로 Intesa Sanpaolo	이탈리아	○	○	○		○
KBC	벨기에	○	○	○		○
의사연기금 Laegernes Pensionskasse	덴마크	○	○	○		○
로이드 뱅킹그룹	영국	○	○	○		○

Lloyds Banking Group						
노디어 은행 Nordea	스웨덴	○	○	○		○
Nykredit	덴마크	○	○	○		○
호레카 케이터링 연기금 Pensioenfonds Horeca & Catering	네덜란드	○	○	○		○
PFA 연금 PFA Pension	덴마크	○	○	○		○
라보뱅크 Rabobank	네덜란드	○	○	○		○
캐나다왕립은행 Royal Bank of Canada	캐나다	○	○	○		○
스코틀랜드왕립은행 Royal Bank of Scotland	영국	○	○	○		○
SEB	스웨덴	○	○	○		○
소시에테 제네랄 Société Générale	프랑스	○	○	○		○
스티칭 연기금 APF Stichting Pensioenfonds APF	네덜란드	○	○	○		○
스미토모 미즈이 트러스트 은행 Sumitomo Mitsui Trust Bank	일본		○	○		○
스웨드뱅크 Swedbank	스웨덴	○	○	○		○
아흐메아 Syntrus Achmea	네덜란드	○	○	○		○
유니크레디트 UniCredit Group	이탈리아	○	○	○		○
밴 라쇼트 Van Lanschot	네덜란드	○	○	○		○
본토벨 Vontobel	스위스	○	○	○		○

*명예의 전당 및 명예의 전당 후보에 포함된 금융기관들이 소재한 국가들은 모두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명예의 전당 후보(국가별 현황)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오른 금융기관이 소속된 나라	금융기관의 수
벨기에	1
캐나다	1
덴마크	4
프랑스	4
독일	2
이탈리아	3
일본	1
스페인	1
스웨덴	3
스위스	2
네덜란드	8
영국	6
합계	36

국가별 모범사례

법률 제정	해석 성명
벨기에	호주
아일랜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이탈리아	카메룬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네덜란드	콩고민주공화국
뉴질랜드	콩고공화국
사모아	크로아티아
스위스	체코
	프랑스
	가나
	과테말라
	교황청
	헝가리
	라오스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타
	멕시코
	니제르
	노르웨이
	르완다
	세네갈
	슬로베니아
	영국
	잠비아

도입

확산탄 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확산탄, 그리고 오슬로 프로세스

2008년 12월 3일은 국제인도법에 있어 중요한 날이었다. 확산탄이 민간인에게 불려일으킨 피해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12월 3, 4일 양일간 총 94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서명했다.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의 사용·생산·이전·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확산탄은 공격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민간인에게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 확산탄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적이 위치한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도록 설계되었다. 이 무기는 지상에서 포나 로켓시스템을 통해서 발사되거나 항공기에서 투하된다. 확산탄은 축구장 서너 개 넓이에 달하는 지역에 수십, 수백에 이르는 소폭탄을 흩뿌린다.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소폭탄을 뿌리게 되면 공격 당시나 공격 이후에 민간인이 사상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뿌려지는 소폭탄 중 다수가 지면에 충돌할 때 폭발하지 않는다. 불발 소폭탄은 지면에 남게되고 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다.

저와 무사, 12살짜리 사촌은 언덕 위로 양을 치고 올라가다가 어떤 물체를 발견했어요. 무슨 실린더 같이 생겼고 커피 잔보다 좀 컸어요. 각각 하얀 리본이 하나씩 달려있었고요. 엄청 많았어요. 우리는 그걸 각각 하나씩 집어 들었는데, 저랑 사촌동생은 그냥 도로 땅바닥에 내려놨어요. 무사는 집어 든 물체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 2,300백미터 정도 걸어가다가 그게 터졌어요. ... 무사는 즉사했습니다. 저는 폭발 당시 다리를 다쳤는데, 사촌동생은 좀 멀리 있어서 다치지 않았습시다.

- 2013년 2월 20일, 불발탄으로 16세 사촌 무사 라마단 하썬을 잃고 부상을 입은 확산탄 생존자의 증언¹¹

오슬로 프로세스는 2007년 2월에 시작되었다. 무기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인 논의의 장에서 진행되었던 정부간 회담이 결국 실패로 끝난 이후, 노르웨이 정부의 초대로 49개국이 모였다. 그 결과물로 채택된 오슬로 선언은 2008년까지 민간인에게 용납할 수 없는 해를 끼치는 확산탄의 사용·생산·이전·비축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약문을 성안할 것을 촉구했다.¹² 연이어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이를 지지하는 국가의 수는 꾸준히 늘어갔다. 확산탄금지협약은 2008년 12월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오슬로 프로세스에서는 확산탄이 불려일으키는 인도주의적 피해를 중단시키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굳건한 협력이 두드러졌다. 대인지뢰금지협약, 국제형사재판소, 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얻은 성과들은 확산탄금지협약을 향해 오는데

이정표 역할을 했다. 확산탄금지협약은 정부들, 주요 국제기구, (확산탄금지연합^{Cluster Munition Coalition}으로 모인^x) 시민사회 행위자들 간의 폭넓은 파트너십으로 분쟁 시기와 그 이후의 민간인들의 삶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만들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예가 된다.

확산탄금지협약은 2010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인 현재 113개국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84개국이 협약의 당사국이다.^{xi} 확산탄금지협약의 보편적 채택과 이행은 무력분쟁 당시와 그 이후의 인간안보 증진과 생존자 지원에 있어 결정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확산탄금지협약 제1조 제1(C)항은 "각 당사국은 누구에게도 본 협약 당사국에게 금지된 활동에 가담하도록 원조, 장려,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¹³ 금융지원은 명백한 지원 행위로 확산탄 생산기업의 확산탄 생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몇몇 국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확산탄금지협약이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고 단언한 바 있다.¹⁴

금융지원 및 투자 행위는 한 기업과 그 사업계획에 대한 명확한 평가에 기초한 적극적 선택과정이다. 그러므로 확산탄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를 끼치는 이러한 무기들의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선택과 같다. 확산탄금지연합의 투자철회 정책문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당사국은 제1조 제1(c)항의 원조 금지에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투자가 금지된다는 점을 자국 법률에 명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¹⁵

제2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몇몇 국가들은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본 보고서 초판이 2009년 10월 발표된 이후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확산탄의 생산을 전면 중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확산탄 투자를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나머지 국가들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 자국 영토 내의 금융기관들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도록 보장해야 하는 주체는 결국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확산탄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현황, 확산탄 투자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서이지만 관련한 모든 정보가 망라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금융기관, 국가 행위자, 시민사회가 확산탄 없는 세상을 향해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함께 일하도록 자극하려 한다.

^x The Cluster Munition Coalition (CMC) is an international coalition working to protect civilians from the effects of cluster munitions by promoting universal adherence to, and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MC membership numbers around 350 civil society organisations from 90 countries. See: www.stopclustermunitions.org.

^{xi} By 31 October 2013 the following countries are States Parties to the CCM: Afghanistan, Albania, Andorra, Antigua and Barbuda, Australia, Austria, Belgium,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ape Verde, Chad, Chile, Comoros, Cook Islands,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Fiji, France, Germany, Ghana, Grenada, Guatemala, Guinea-Bissau, Holy See, Honduras, Hungary, Iraq, Ireland, Italy, Japan, Lao PDR, Lebanon, Lesotho,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cedonia FYR, Malawi, Mali, Malta, Mauritania, Mexico, Moldova, Monaco, Montenegro, Mozambique, Nauru,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orway, Panama, Peru, Portugal, Saint Kitts and Nevis,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n Marino,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lovenia, Spain,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Togo, Trinidad and Tobago, Tunisia, United Kingdom, Uruguay and Zambia.

금융기관 가지는 힘과 책임

우리의 세계화된 세상에서는 다양한 금융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는 사기업도 존재하며 국영 금융기관도 존재한다. 은행, 보험회사, 투자기금, 투자은행, 연금기금, 수출신용에이전시, 다국적금융기관, 정부기금 외 다수 금융기관들은 금융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다수의 기업과 정부가 운영자본 확보를 위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들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은 인간 활동의 모든 측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기관들은 어떤 기업과 사업에 금융지원·투자할 것인가를 선택함으로써 이들 금융기관들은 특정(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비록 점차 더 많은 수의 금융기관들이 확산탄 투자철회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많은 금융기관들이 자사 정책의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거나 아예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 관련 정책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제1장 수치의 전담에는 확산탄 생산기업에 투자하고 있거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의 사례가 폭넓게 다루어져 있다. 이 같은 투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심각한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그 같은 우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논란적인 확산탄의 본질과 투자자와의 공모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확산탄은 용납될 수 없는 무기로 폭넓게 인정된다. 110개가 넘는 국가들이 확산탄금지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이 무기를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들은 이 같은 무기의 제조에 관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종종 금융지원이나 금융 서비스 제공을 중립적인 활동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투자행위는 분명 해당 기업의 목적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본을 충당해주는 방식으로 말이다. 금융기관은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목적에 찬성을 표하는 것이다. 확산탄에 관여하는 기업을 상대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확산탄 생산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지원은 기업에게 필수불가결하다. 모든 금융기관들은 자사 포트폴리오 내의 기업들에게 확산탄 생산 및/또는 개발 관여를 중단할 것을 고집하고 그러한 요구를 무시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철회한 금융기관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다행히도 오슬로 프로세스의 진행과 맞물려서, 또 확산탄금지협약 제정 이후에 점점 더 많은 수의 금융기관들이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 같은 금융기관들은 자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확산탄 생산기업을 금지시켰다. 제2장은 확산탄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정책을 다루고 있다.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점점 더 많은 수의 기관들이 실제 투자를 철회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들이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투자지침에 확산탄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고통을 고려한 금융기관들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명예의 전담에는 자신들의 책임을 짊어지고 포괄적인 확산탄 투자철회 정책을 이행한 금융기관들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같은 장에 포함된 명예의 전담 후보에는 확산탄 투자철회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했지만 정책상 혹은 이행상 결점이 일부 존재하는 금융기관들의 목록이 포함되었다.

우리의 연구

우리 연구의 목적은 세계 확산탄 생산 및/또는 개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여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다음 두 연구 질문에 녹아있다.

1. 어떤 금융기관이 확산탄 생산기업에 투자하고 있는가? 제1장에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2. 누가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가? 제2장에는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해 투자를 철회한 금융기관들과 이 같은 투자를 불법화한 국가들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확산탄 생산기업과 그 금전적 연결고리, 또 금융기관들의 정책에 대한 연구는 프로펀도가 맡아서 진행했다.

우리는 여기 제공된 정보가 국가, 금융기관, 시민사회를 자극해 확산탄이 불러일으키는 용납할 수 없는 인도적 피해를 종식시키자는 확산탄금지협약의 목적 실현이 앞당겨지기를 희망한다.

제1장

수치의 전당: 금융지원 및 투자

첫 장은 다음과 같은 조사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루고 있다.

어떤 금융기관들이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과 금전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 첫 번째 부분은 본 연구 목적으로 선택된 기업들에 대해 서술한다.
- 두 번째 부분은 확산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1.1 확산탄 생산기업들로 구성된 요주의 기업목록

1.1.0 도입 및 연구방법

우리 연구의 목적은 확산탄을 생산·개발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전세계 금융기관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최신 자료가 반영된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이다. 그 같은 금융기관들을 밝히기에 앞서 확산탄이 무엇인지와 확산탄 생산기업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정의

우리의 연구 프로젝트는 확산탄금지협약 상의 확산탄 및 폭발성 소폭탄에 대한 정의를 따른다.

“확산탄(Cluster Munition)은 각각 20킬로그램 이하의 폭발성 소폭탄들을 사방에 뿌리거나 방출하기 위해 설계된 재래식 탄약과, 이러한 폭발성 소폭탄들을 포함한다. 이는 다음의 것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1. 불꽃 연기 꽃불 채프(chaff, 방어용 금속조각)가 나오도록 설계된 탄약이나 소폭탄 또는 오직 방공 역할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탄약
2. 전기, 또는 전자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설계된 탄약 또는 소폭탄
3. 무차별적인 지역 영향(area effects)과 불발 확산탄으로 생기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래의 특성들을 모두 지닌 탄약
 - i. 각각의 폭탄이 열 개 미만의 소폭탄을 갖는다.
 - ii. 각각의 폭발성 소폭탄의 무게가 4 킬로그램 이상이다.
 - iii. 각각의 폭발성 소폭탄들이 단 하나의 목표물을 감지해 공격하도록 설계되었다.
 - iv. 각각의 폭발성 소폭탄들이 전자적 자기파괴 구조를 갖추고 있다.
 - v. 각각의 폭발성 소폭탄들에 전자적 자기비활성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폭발성 소폭탄(Explosive submunition)은 목적 수행을 위해 확산탄에서 흩뿌려지거나 방출되어 공격의 이전 순간 이후에 걸쳐 폭발하도록 설계된 재래식 탄약을 의미한다.¹⁶

우리는 확산탄 생산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자사 또는 자회사를 통해 확산탄금지연합의 정의에 따른 확산탄 및/또는 폭발성 소폭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기업 또는 그룹
- 자사 또는 자회사를 통해 확산탄이나 폭발성 소폭탄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이나 그룹. 핵심 부품은 확산탄이나 폭발성 소폭탄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부품이다.

우리는 그 규모에 무관하게 기업의 총 매출의 일부가 확산탄과 폭발성 소폭탄(또는 그 핵심부품)의 생산에서 파생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수행하는 여타 활동의 성질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 또는 그룹을 확산탄 생산기업으로 간주한다.

이는 생산되는 확산탄 대부분이 확산탄 외 다른 방위 및/또는 민수 상품도 생산하는 기업들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이다. 기업과 그룹은 손쉽게 내부적으로 자본을 재분배할 수 있다. 하나의 생산 라인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다른 생산 라인에 투자될 수 있다. 일반 사업용도를 위한 자금은 어떠한 기업의 활동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오직 확산탄에 대한 재정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더구나 기업이 확산탄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총 매출 중 단지 1%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1%는 상당한 액수가 되며 상당량의 확산탄 생산을 의미할 수 있다.

• 선별 및 연구

1차 조사대상 선별 기준

이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확산탄 생산기업들로 구성된 1차 조사대상을 취합했다.

- 해당 기업이 2008년 5월 30일(더블린에서 협약문이 채택된 날) 이후 확산탄과 폭발성 소폭탄(또는 그 핵심부품)을 생산했으며, 그 기업이 12개월 안에 생산을 종료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지난 1년간 해당 기업이 확산탄과 폭발성 소폭탄(또는 그 핵심부품)의 계획된 생산과 개발에 관여해 왔으며, 그 기업이 12개월 안에 그 같은 관여를 중단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기업의 출판물 또는 관련업계 정기간행물에서 확산탄 인도가 명확하게 기술됐다면 해당 기업이 현재/미래의 확산탄 생산에 관여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로 간주된다. 최근 정부 예산에 확산탄 예산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당 기업이 지난 1년간 전시회, 안내책자, 또는 기업의 웹사이트에서 확산탄 또는 폭발성 소폭탄을 광고했다면 이는 개발과 생산의 증거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또는 해당 광고에서 우리가 아는 바 2008년 5월 30일 이후 생산되지 않은 확산탄 또는 폭발성 소폭탄(또는 그 핵심부품)을 언급한다면 우리는 1차 연구대상에 그 기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사 웹사이트에 확산탄 또는 폭발성 소폭탄(또는 그 핵심부품)을 언급하는 일부 기업들은 1차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내책자가 2008년 5월 이전의 것일 수 있으며, 해당 품목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다른 증거가 있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확산탄 또는 폭발성 소폭탄(또는 그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일부 기업들의 경우는 우리가 확산탄 생산활동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1차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도 했다.

1차 연구대상에서 선별 대상으로(“요주의 기업 목록”)

1차 연구대상에 포함된 모든 확산탄 생산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해당 기업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금융기관과 금전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공개 도메인에 있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 확인될 수 있는지를 조사했다. 제1장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찾아낸 금전적 연결고리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금융기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을 경우 우리는 본 보고서에 해당 확산탄 생산기업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국영기업과 사기업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선별 목록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확산탄 또는 폭발성 소폭탄(또는 그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전세계 기업들을 망라한 목록으로 간주될 수 없다.

1.1.1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미국)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ATK)는 전세계의 가장 큰 탄약 생산기업이며 정밀시스템과 전자전 장비의 주요 공급회사이다. 이 기업은 우주 추진 체계 분야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¹⁷

1992년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는 미국 공군용 CBU-87/B 복합효과탄(Combined Effects Munition) 생산 계약을 따냈다.¹⁸ CBU-87/B는 202발의 BLU-97/B 소폭탄을 내장하고 있었다. 폭탄 생산은 에어로제트에서 담당했으며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는 소폭탄을 생산 및 폭탄 조립을 담당했다. CBU-87/B는 제1차 걸프전과 코소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2000년 이후 CBU-87/B에는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바람수정확산탄(WCMD) 후미 유도 키트가 장착되었다. 그 이후로 CBU-87/B는 CBU-103로 정해졌다.¹⁹

CBU-103이 미 국방 예산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2006년이였다.²⁰ 이는 동 모델의 생산이 그 해에 종료된 것을 의미한다.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는 텍스트론(1.1.7 참조)에서 생산하는 감응신관무기(SFW)용 로켓 모터의 설계 및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감응신관무기를 확산탄금지협약에서 정의하는 확산탄으로 간주하고 있다.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는 이 같은 종류의 확산탄 핵심부품을 생산한다.

감응신관무기에 대한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의 기여에 대한 다음의 정보는 2010년 2월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감응신관무기(SFW) 에서 뿌려진 BLU-108 소폭탄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미션 시스템으로 설계 · 생산된 로켓 모터로 추진된다. 감응신관무기는 모터 연소 뒤 스킵 탠두를 발사하며 BLU-108 소폭탄에 상승 추방향추력과 회전토크를 주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었다. 상승추력과 회전토크는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로켓 모터의 이중탄젠트노즐을 통해서 얻게 된다. 감응신관무기는 미 공군을 위해 생산에 들어간 첫 번째 스마트 공대지 탄약이다. 1000 파운드 급의 무기인 감응신관무기는 10개의 BLU-108 소폭탄을 장착하고 소폭탄 각각은 4개의 스마트 스킵 탠두 40개를 내장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에서 원거리 발사용으로 설계된 감응신관무기는 다용성과 월등한 살상력으로 인해 대장갑용도, 적 대공방어시스템 파괴, 기타 전투임무에 적합하다.”²¹

위 내용은 2011년부터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감응신관무기의 주요 부품 공급자로서,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는 미 공군과 텍스트론 디펜스 시스템이 체결한 몇몇 계약에 관계하고 있다. 2006년 3월 텍스트론 시스템즈는 미 공군이 2006 회계연도 감응신관무기 획득을 위해 자사와 1억800만 달러 상당의 도급계약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3년 기한의 본 계약은 장기지속가격책정협정(LTPA)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텍스트론 시스템즈는 2013년까지 미 공군에 약 6,500발의 감응신관무기(SFW)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²²

미 공군과 텍스트론이 체결한 감응신관무기 인도 관련 계약 중 우리가 가장 최근 밝혀낸 건은 2007년 1월 31일자 “미화 92,938,707 달러 상당의 고정확정가격 계약 변경”으로 “12 생산로트 사용 전율생산 옵션으로 291발의 감응신관무기(SFW)를 제공”²³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계약은 2009년 2월 추가적으로 미화 9,527,490 달러 상당의 감응신관무기를 획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 조치는 12 생산로트 전율생산으로 감응신관무기 30개를 추가 제공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총 금액은 채무 지불로 충당되었다. 에글린 공군기지가 계약기관(contracting activity)이다.”²⁴

2004년 6월 이후, 텍스트론 디펜스 시스템즈는 주로 미 공군 대외군사판매(FMS) 계약방식으로 다른 나라에도 감응신관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동 무기 구매국에는 인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포함된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가장 최근 계약은 2013년 8월이다.²⁵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1.1.7을 참조하라.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는 핵심 부품 공급자로서 이들 계약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는 자사 연례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미 공군을 상대로 한 감응신관무기 공급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²⁶ 2013년 3월 회계연도 마감 시점의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13 회계연도 미 정부 판매 중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단독입찰 계약은 65%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의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 (...) 감응신관무기 추진 체계, (...)".²⁷

2013년 8월, 노르웨이 국영연금 윤리위원회는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가 더이상 CBU-87/B 확산탄과 BLU-108 소폭탄 생산을 광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의 확산탄 생산기업 지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²⁸ 하지만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는 감응신관무기 추진 체계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IKV팩스 크리스티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²⁹ 우리는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가 자사 웹사이트에서 감응신관무기 로켓 모터 관련 정보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008년 5월 이후에도 감응신관무기의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요주의 기업목록에 그대로 포함시켰다. 이는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가 2013 연례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와 자사와 체결한 단독입찰 계약 중 하나로 감응신관무기 추진 체계를 언급하면서 확인되었다. 우리가 아는 한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는 향후 12개월 안에 감응신관무기 로켓 모터 생산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다.

1.1.2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 (중국)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CASC)는 주로 미사일 개발과 항공우주 전자공학 및 기타 항공우주 장비 개발 부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국영기업이다.³⁰ 사천항천기술연구원(SCAIC)은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산 장비 생산·연구 및 로켓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천항천기술연구원은 몇 종류의 다연장로켓시스템(MLRS)를 생산하고 있다. 그 중에서 302mm WS-1 MLRS, 122 mm WS-1E MLRS, 302 mm WS-1B MLRS, 그리고 400 mm WS-2 Guided MLRS는 다목적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그 같은 다목적 탄두에는 "장갑파괴 및 인명살상 이중용도 확산탄", "포괄 효과 확산탄", "감응신관 확산탄"이 포함된다.³¹ WS-1B에 사용 가능 탄두 중에는 466발의 소폭탄이 내장된 SZB-1이 있다.³²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는 자회사인 사천항천공업공사가 자사 웹사이트 제품 소개 페이지에서 확산탄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요주의 기업목록에 포함되었다. 우리는 사천항천공업공사가 2008년 5월 이후 이러한 종류의 확산탄 생산을 중단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1.1.3 한화 (대한민국)

과거 주식회사 한국화약이었던 주식회사 한화의 주요한 두 사업 영역은 상용 화약, 방산 물자, 항공우주 물자를 생산하는 화약 분야와 석유, 금속, 및 기타 상품들을 전세계에

판매하는 무역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³³ 한화는 1974년에 공식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군수품을 전문으로 생산했다. 군수품 제작 과정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으며 한국 정부가 유일한 고객이다.³⁴

한화는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MLRS)과 2.75인치 다목적소폭탄(MPSM)을 생산한다. 이는 2007년 노르웨이 정부 연금기금에 답변한 확산탄 제조에 관한 한화의 서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³⁵

2010년 2월, 한화는 홈페이지를 통해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과 2.75인치 다목적소폭탄을 광고하고 있다. 한화 홈페이지에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이 “넓은 지역에 걸쳐 집중된 적의 진지에 다량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되어 있다.³⁶ 2.75인치 다목적소폭탄은 “HE MPSM K224 탄두에 사람, 물건, 경량장갑에 사용할 수 있는 9개의 다목적소폭탄이 각각 들어있다”고 설명되어 있다.³⁷

2011년 1월, 2.75인치 다목적소폭탄은 여전히 한화 웹사이트에 나와 있었지만,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은 없어졌다. 웹사이트에는 2.75인치 다목적소폭탄을 “헬리콥터와 제트기를 사용하는 공대지 작전을 위한 무기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⁸

2012년 3월 2.75인치 다목적소폭탄과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 모두가 한화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2011년 핸디캡인터내셔널(Handicap International)과 페이스파이낸스(Facing Finance)의 조사는 한화가 여전히 2.75인치 소폭탄과 소폭탄이 들어있는 120mm 박격포탄(mortar bomb)을 2011년 IDEX(International Defence Exhibition)에서 전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⁹

확산탄에 사용되는 기계식신관(mechanical fuze) M577A1과 전자식근접신관(electronic proximity fuze) M732 모두 2012년 3월 한화 홈페이지에 올라와있었지만 이후에 사라졌다.

40

2010년 2월, 한화는 130mm 다연장로켓시스템과 2.75인치 다목적소폭탄뿐만 아니라 소위 항공기용 살포식 폭탄을 웹사이트에 언급했는데 이는 항공기에 부착되며 “밀집된 적의 진자와 지상 부대를 공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다.⁴¹ 노르웨이 연금기금 윤리위원회는 이 무기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이는 애초에 한화가 연금기금 투자대상으로부터 배제 당하게 된 원인이었던 바로 그 범주의 확산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⁴²

2011년 1월 이후, 이러한 종류의 확산탄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한화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2012년 4월, 한국 정부는 확산탄 모니터(Cluster Munition Monitor)에 2011년 한화가 사거리를 연장한 (항력감소) 155mm 이중목적개량소폭탄(DPICM) 소폭탄 42,800발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 한화는 같은 해에 227mm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6,150발을 생산했다.⁴³

한화는 2008년 5월 이후 MPSM 소폭탄을 자사 웹사이트에서 홍보했으며 최소 2011년까지 DPICM 소폭탄과 227mm MLRS를 생산했으며, 2011년에 2.75 인치 소폭탄과 소폭탄을 내장하고 있는 120mm 박격포탄을 판매했기 때문에 요주의 기업목록에 올라와 있다. 2008년 5월 이래로 이러한 유형의 소폭탄 생산을 중단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1.1.4 중국북방공업공사 (중국)

중국북방공업공사(Norinco, 노린코)는 방산물자와 기타 산업분야에 관계하는 그룹형태의 국영기업이다.⁴⁴

중국북방공업공사는 공중투하식, 지상발사식 확산탄을 모두 생산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종류의 확산탄에는 분리장전식 탄약으로 81식 이중목적 대전차고폭탄(HEAT) 소폭탄 35발을 내장하는 59식 130 mm 캐논포 발사체가 포함된다.⁴⁵

중국북방공업공사는 자사의 350 kg 대전차 확산탄의 250 kg 버전을 개발했다. 이 2식 확산탄은 넓은 지역에 내장된 소폭탄을 흩뿌리기 위해 공중 투하식으로 설계되었다. 이 확산탄은 다음의 세가지 기본 내장 옵션이 제공된다: 대인 · 대물(APAM) 파쇄탄(fragmentation bomblets), 대인살상(AP) 자탄, 대전차(AT) 자탄.⁴⁶

중국북방공업공사는 몇몇의 MLRS를 개발했으며, 이 중에는 1990년대의 2세대 트럭 탑재형 122mm 40관 다용도로켓발사시스템인 90식 122mm MLRS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델은 40개 로켓발사관에 소폭탄 39발을 내장하는 122mm DPICM탄을 장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량된 모델인 90B식은 2004년에 공개됐다.⁴⁷

2008년 9월, 중국북방공업공사는 아프리카 항공우주방위 전시회에서 그들의 AR2 300mm 장거리 MLRS를 공개했다.⁴⁸ 2009년 IDEX에서는 AR1-A가 선보여진 바 있다.⁴⁹ AR1-A와 AR2는 다른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623발의 자탄을 내장하는 확산탄 탄두가 장착된 BRC3, 비슷한 유형이지만 사거리가 연장된 BRC4, 재래식 고폭탄두가 장착된 BRE2가 그것이다.⁵⁰

2011년 IDEX(세계 방위 전시회)에서 핸디캡인터네셔널과 페이싱파이낸스가 수행한 조사에서 중국북방공업공사가 90B식 122mm 및 W-120 273mm MLRS용 확산탄 발사체를 홍보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바 있다.⁵¹

중국북방공업공사에 대한 정보는 제인스(Jane's) 등 기타 방산물자 정보제공업체를 통해 취득된 것이다. 중국북방공업공사 웹사이트의 중국어와 영어 페이지는 모두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국북방공업공사가 현재 이 상품들을 웹사이트에서 광고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중국북방공업공사는 2008년 5월 이후 확산탄을 생산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요주의 기업목록에 포함되었다. 중국북방공업공사는 이후 12개월 안에 확산탄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1.1.5 풍산 (대한민국)

한국의 선도적인 방위산업체인 풍산은 군용 및 스포츠용 탄약을 개발한다.⁵²

풍산은 이중목적개량재래식탄 DPICM TP/K308과 DPICM K310 두 종류의 155mm 확산탄 생산에 참여해 왔다. 두 종류 모두 155mm 포탄이며, K308은 소형 폭발성 소폭탄인 K244 자탄 40발과 더미탄 48발을 내장하고 있으며, K310은 K221 소폭탄 49발을 내장하고 있다.⁵³

2006년 풍산은 피오에프(POF, Pakistan Ordnance Factory)와 DPICM K310을 공동생산하기로 면허생산 계약을 체결했다.⁵⁴ 2008년 4월 파키스탄 군이 초도물량의 탄약을 인도받았다.⁵⁵ 2009년 4월, 풍산은 155mm K310 포탄의 비활성 부품을 피오에프 산지왈(Sanjwal) 공장으로 새로이 수출했다. 선적 서류에는 "155mm K310 Dummy Kit", "KM577 Dummy Metallic Fuze" 등 해당 탄약부품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세관 당국 서류를 통해 2010년 2월 풍산으로부터 또 다른 K310 포탄의 비활성 부품 운송 건이 드러났으며, 선적서류에는 "155mm K310 TP 발사체(더미탄) 4 펠릿"으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⁵⁶

2011년 1월, 풍산 영문 웹사이트 상의 제품 목록에는 K310이 빠져 있지만 여전히 이중목적개량재래식탄(DPICM) TP/K308이 소개되어 있다. DPICM K308과 K310 둘 다 지난 2년 동안 한국어판 카탈로그에만 올라와 있다.⁵⁷ 핸디캡인터내셔널과페이싱파이낸스(독일)이 IDEX에서 수행한 조사 역시 풍산이 여전히 K310을 2011년에 전시하고 있다는 증거를 밝혀냈다.⁵⁸ K308과 K310에 사용되는 155mm K221 자탄은 2013년 8월 풍산 웹사이트에 영문판 탄약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다.⁵⁹

풍산은 2008년 5월 이후 DPICM K310 과 TP/K308 확산탄을 생산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요주의 기업목록에 포함되었다. 이 이후로 이러한 종류의 확산탄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풍산은 이후 12개월 안에 확산탄 생산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공개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1.1.6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싱가포르)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Ltd (ST 엔지니어링)은 항공우주, 전자공학, 지상전 시스템, 그리고 해양 분야에 대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통합 엔지니어링 그룹이다.⁶⁰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의 지상전 시스템 부문인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키네틱스⁶¹는 최소한 두 버전의 155mm 고풍(HE) 이중목적개량재래식탄(DPICM)을 생산했다. 이는 기계적 자기파괴 신관이 장착된 소폭탄 64발을 내장하고 있는 확산탄 종류들이다.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은 불발률이 3%라고 주장하고 있다.⁶²

비록 155mm HE DPICM이 더 이상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의 웹사이트 공식 제품목록에서 보이지 않지만, 2013년 8월 2007년 1월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책자에는 위 제품이 수록되어 있었다.⁶³

2008년 싱가포르 정부는 확산탄 수출에 대한 무기한적인 모라토리엄(수출중단)을 시행할 것이며 이 같은 조치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⁶⁴ 2008년 11월 AFP 통신사는 “우리는 수출 목적으로 확산탄을 생산하지 않으며, 위탁 생산도 하지 않는다. [...] 지금까지 우리는 확산탄을 수출한 적이 없다.”라는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대변인의 말을 인용한 바 있다.⁶⁵

2010년 5월,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은 현재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느냐는 지뢰·확산탄 모니터(Landmine and Cluster Munition Monitor)의 질문에 대해 “ST 엔지니어링은 수출용 확산탄을 생산하지 않으며, 위탁 생산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싱가포르 정부와 함께 일하며, 싱가포르 정부가 확산탄 수출에 대해 시행한 모라토리엄 조치를 따르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ST 엔지니어링은 확산탄에 대한 인도적 우려에 대해 진정으로 국제적·지속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 방위산업체, 국제기구들과 함께 일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⁶⁶ 그러나 이 발언에서는 수출 목적의 확산탄만이 언급되었으며 싱가포르 정부에 공급할 용도의 확산탄 생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은 자사 웹사이트에 155mm HE DPICM 확산탄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요주의 기업목록에 포함되었다. 2008년 5월 이후 이런 종류의 확산탄 생산을 중단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은 앞으로 12개월 안에 생산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없다.

1.1.7 텍스트론 (미국)

텍스트론은 복합산업체 기업이며, 다수의 자회사 및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텍스트론 디펜스 시스템즈 부문에서 운영하는 자회사인 텍스트론 시스템즈 주식회사는 항공무기, 스마트 소폭탄, 지능형 전장 물자, 센서 시스템, 지상 및 공중 정찰 시스템을 생산한다.⁶⁷

텍스트론의 감응신관무기(SFW) 초기버전은 CBU-97로 정해졌다. 후에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바람수정탄디스펜서(WCMD)이 해당 모델에 추가 장착되었다. 감응신관무기에 바람수정탄디스펜서(WCMD)가 장착된 모델은 CBU-105로 정해졌다.

감응신관무기 생산에 기여한 또 하나의 공급자는 로켓 모터를 생산하는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1.1.1 참조)이다.

텍스트론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응신관무기 제품 안내책자에는 다음의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CBU-97과 CBU-105로 알려진 텍스트론 디펜스 시스템즈의 감응신관무기는 미 공군 보유 무기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전장에서 입증된 깨끗한

전쟁무기이다. [...] 1000파운드 급의 무기인 감응신관무기는 텍스트론 디펜스 시스템즈의 BLU-108 소폭탄 10발을 장착하고 있다. 각각의 소폭탄은 스마트 스킵트 탄두 4발을 내장하고 있기에 모두 40개의 탄두를 갖고 있다. 감응신관무기 한 발은 121,400평방미터(30에이커) 내의 고정되어 있거나 움직이는 지상 및 연안의 군사목표물을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유용성으로 인해 감응신관무기는 침략군 저지 및 방공사이트 공격을 가능케 하며 항공기 출격 횟수 역시 상당 수준 감소되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에서 원거리 발사용으로 설계된 감응신관무기는 다용성과 월등한 살상력으로 인해 대장갑용도, 적 대공방어시스템 파괴, 기타 전투임무에 적합하다. 이 무기는 주야로 전천후 환경에서 미군 및 NATO 전술 항공기에서 투하될 수 있고, 대부분의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 규격에 맞게 설계되었다. 각각의 스마트 스킵트 탄두는 계류 중인 항공기, 이동 레이다와 방해전파 차량, 방공차량, 지원차량 등 다양한 이동 및 고정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⁶⁸

텍스트론은 감응신관무기가 자기파괴와 자기비활성화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이로써 "불발탄의 위험이 거의 제거되었다"고 주장한다.⁶⁹ 텍스트론은 감응신관무기가 확산탄금지협약이 규정하는 확산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⁷⁰ 그러나 텍스트론이 주장하는 타격 정밀성과 불발률 1% 미만의 자기파괴 메커니즘의 신뢰도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⁷¹ 확산탄금지협약의 당사국들은 감응신관무기가 확산탄금지협약 상 금지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텍스트론의 입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가 출간한 확산탄 금지협약에 대한 법률 해설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⁷²

BLU-108과 호환되는 텍스트론 디펜스 시스템의 선별 표적 스킵트(STS) 소폭탄 "감응 신관 스마트 소폭탄"은 더 이상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홍보되지 않는다.⁷³

감응신관무기는 다양한 계약 하에서 주로 미 공군에 판매되었다. 2006년 3월, 텍스트론 디펜스 시스템즈는 미 공군의 회계년도 2006년 내 감응신관무기 획득 관련 1억 8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3년 기한의 본 계약은 장기지속가격책정협정(LTPA)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텍스트론 시스템즈는 2013년까지 미 공군에 감응신관무기 6,500발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⁷⁴

미 공군과 텍스트론이 체결한 감응신관무기 인도 관련 계약 중 우리가 가장 최근 밝혀낸 건은 2007년 1월 31일자 "미화 92,938,707 달러 상당의 고정확정가격 계약 변경"으로 "12 생산로트 사용 전율생산 옵션으로 291발의 감응신관무기(SFW)를 제공"⁷⁵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계약은 2009년 2월 추가적으로 미화 9,527,490 달러 상당의 감응신관무기를 획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 조치는 12 생산로트 전율생산으로 감응신관무기 30개를 추가 제공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총 금액은 채무 지불로 충당되었다. 683rd ARSS/SYKA에글린 공군기지가 계약기관(contracting activity)이다."⁷⁶

2004년 7월 이후 텍스트론 디펜스 시스템즈는 또한 미 공군 대외군사판매(FMS) 계약방식으로 감응신관무기를 다른 나라에 판매하고 있다. 미국이 2009년 3월 법률로 서명한 확산탄 수출 면허 금지 대상에는 불발률 1% 미만의 확산탄이 제외되어 있다. 텍스트론이

CBU-105의 불발률이 1%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여전히 수출이 허용되고 있다.

FMS방식을 통한 계약체결 또는 계약에 대한 발표는 다음이 포함된다.

터키: 2006년 11월 텍스트론 시스템즈는 미 공군 FMS 방식으로 터키 공군에 감응신관무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다.⁷⁷

- 오만: 2006년 텍스트론 디펜스 시스템즈는 수량 미상의 감응신관무기를 오만에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⁷⁸
-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2007년 11월 UAE는 텍스트론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텍스트론 디펜스 시스템즈는 2010년 6월 미화 5700만 달러 상당의 수량미상의 CBU-105 감응신관무기를 UAE에 인도했다.⁷⁹
- 한국: 한국정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개발기인 F/A-50 경공격기에 텍스트론 디펜스 시스템즈의 감응신관무기를 통합하기로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에글린 미 공군 기지 공군물자센터와 한국 방위사업청 주도의 FMS를 통해서 텍스트론 디펜스 시스템즈는 2010년부터 비활성 통합용 탄두를 제공할 것으로 당시 예상되었다.⁸⁰ 2012년 6월 미국방안보협력국은 의회에 한국에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미화 약 3억 2500만 달러에 상당하는 CBU-105D/B WCMD 감응신관무기 367발 및 관련 부품, 장비, 군수지원 및 훈련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⁸¹ 우리는 이 같은 거래에 대한 최종 확정된 계약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 인도: 2010년 12월 텍스트론 디펜스 시스템즈와 다음과 같은 FMS 계약이 체결되었다. "감응신관무기 CBU-105 완제품 512발 및 훈련탄 44발을 제공하는 미화 257,737,338 달러 상당의 계약. 동 계약은 인도에 대한 대외군사판매에 따른다. 현 시점에서 미화 126,291,295 달러는 채무로 지급되었다. 계약기관은 에글린 공군기지다."⁸² 2011년 2월, 텍스트론은 인도 정부를 위해 감응신관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텍스트론은 미화 1억 2600만 달러의 착수금을 받았다.⁸³ 인도 날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상당 기간에 걸쳐 무기가 인도될 것은 명백하다.⁸⁴
- 사우디아라비아: 2011년 6월,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미 의회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CBU-105 감응신관무기 404발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⁸⁵ 사우디아라비아는 텍스트론의 2012년 팩트북에 감응신관무기의 수령국으로 등재되었다.⁸⁶ 2013년 8월, 텍스트론 디펜스 시스템즈는 2015년까지 인도가 완료되도록 예정된 미화 64100만 달러 상당의 확산탄 1300발 변경계약을 도급했다.⁸⁷
- 대만: 2011년 9월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의회에 CBU-105 WDMD 감응신관무기 64발 포함, 대만 F-16A/B 개량 및 관련 장비의 미화 53억 달러 상당의 해외군사판매 가능성을

보고했다.⁸⁸ 2012년 9월, 전투기 개량 계약관련 미화 18억 5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금이 록히드 마틴에 지급되었지만, 감응신관무기 관련사항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⁸⁹

텍스트론은 2008년 5월 이후 감응신관무기를 생산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요주의 기업목록에 포함되었다. 텍스트론은 앞으로 12개월 안에 생산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없다.

1.1.8 더 이상 요주의 기업목록에 포함되지 않게 된 기업들

록히드 마틴 (미국)

록히드 마틴은 주로 신기술, 제품생산, 서비스 등의 연구, 설계, 개발, 제조, 통합 및 유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안보기업이다.⁹⁰

록히드 마틴은 과거에 몇몇 확산탄 부품 생산에 관여해왔으며 이 중에는 1995년 개발이 시작돼 2003년 이라크에서 처음 사용된 바람수정탄디스펜서(WCMD)⁹¹ 이 있기도 하다. WCMD는 CBU-87/B 복합효과탄 (CEM)과 CBU-97 감응신관무기(SFW) 확산탄에 장착되는 적정가격의 유도키트로 여겨졌다.⁹²

동 기업의 가장 최근 확산탄 생산은 2003년부터 생산해온 유도다연장로켓시스템(GMLRS) 미사일이다. GMLRS는 두 종류로 개발·생산되었는데 단일탄두를 가진 M31과 M101 이중목적개량재래식탄(DPICM) 소폭탄 404발을 내장하고 있는 M30 탄두가 있다. 1994년 록히드 마틴은 미 육군과의 GMLRS 계약에서 주 도급업체로 선정되면서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업체가 되었다.⁹³ 2009년 초, 미국 정부는 2009 여름께로 추정되는 기계약분 DPICM탄의 인도 완료시점 이후로 미 육군에서는 DPICM탄 획득을 중단하고 단일탄두 로켓만을 구입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1% 이상의 소폭탄을 불발탄으로 남기는 확산탄의 수출도 금지되었다.⁹⁴

2011년 5월 록히드 마틴은 IKV 팩스 크리스티에 “록히드 마틴은 현재 대인지뢰나 대인 소폭탄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그러나 록히드 마틴은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대물·대인 살상능력을 갖춘 소폭탄의 운반체로 기능하는 체계 공급에 대한 기존 계약 관계를 두 건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계약상의 의무는 확산탄금지협약 채택 이전에 발효되었으며, 늦어도 각각 2011년과 2013년까지 이행될 예정이다. 록히드 마틴은 기존 계약의무 이행 완료 시점 이후에는 이러한 생산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록히드 마틴은 더 이상 대인살상용 확산탄 내장토록 설계된 로켓 및 미사일을 홍보하지 않는다.”⁹⁵

록히드 마틴의 활동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록히드 마틴은 2013년 4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록히드 마틴은 절대로 확산탄을 생산하지 않았으며, 확산탄 탄두와 결합되는 로켓과 미사일, 또는 기타 운송체계에 대한 마케팅을 중단했다. 우리는 향후에도 그런 제품 생산을 수주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및 향후 생산되는 MLRS/GMLRS/ATACMS 계열의 미사일은 비확산탄 탄두만을 포함하고 있다. MLRS를 포함해 이전 성명에서 언급했던

확산탄 운반체 관련 두 건의 휴면계약은 [...] 현재 추가 생산 없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2010년 바람수정탄약운송키트의 생산을 중단했다.”⁹⁶

우리는 록히드 마틴이 확산탄용 로켓, 미사일, 또는 기타 운반체계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으며, 향후 이 같은 주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주었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을 요주의 기업목록에서 제외했다.

스플라프 국립연구생산엔터프라이즈 (러시아)

국영기업인 스플라프는 2012년 요주의 기업 목록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2013년 개정보고서에서는 스플라프에 대한 금융 투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는 포함기준에 부합되도록 스플라프를 요주의 기업목록에서 제외시켰다. 비록 스플라프가 요주의 기업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조사는 스플라프가 여전히 확산탄 생산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스플라프 국립연구생산엔터프라이즈(스플라프)는 1950년대 말 다연장로켓시스템(MLRS)를 개발하기 시작했다.⁹⁷ 스플라프는 오늘날 자사가 전세계의 선도적인 MLRS 제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⁹⁸

스플라프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확산탄 탄두를 장착한 122mm, 220mm, 300mm 로켓 발사체를 홍보한다.⁹⁹ 스플라프의 지상군용 “스메르시(Smerch) 다연장로켓시스템(MLRS)에 사용되는 발사체들에는 소폭탄 72발을 내장하고 있는 300mm 9M55K, 소폭탄 25발을 내장하고 있는 300mm 9M55K4, 소폭탄 646발을 내장하고 있는 300mm 9M55K5가 있다.¹⁰⁰ 9N176 소폭탄 646발을 내장하고 있는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9A52M Smerch-M MLRS와 호환되는 9M531 로켓은 스플라프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¹⁰¹ 그러나 2013년 IDEX 안내책자에는 9M531이 소개되어 있었다.¹⁰²

122mm “그라드(Grad)”와 “그라드-1(Grad-1)” MLRS는 소폭탄 2발을 내장하고 있는 감지신관 소폭탄 분산 확산탄 탄두를 장착한 9M217 비유도 로켓 발사체와 소폭탄 45발을 내장하고 있는 성형작약 파편 분산 탄두를 장착한 9M218 비유도 로켓발사체를 포함해 다양한 로켓 발사체들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되고 있다.¹⁰³

220mm “우라간(Uragan)” MLRS는 스플라프 웹사이트에서 파편 소폭탄 30발을 내장하는 파편 소폭탄 분산 확산탄 탄두를 장착한 9M27K 220 mm 로켓 발사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되고 있다.¹⁰⁴

스플라프는 관련해 어떠한 금전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기에 요주의 기업목록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스플라프는 여전히 자사 웹사이트에서 확산탄을 광고하고 있다. 2008년 5월 이후 이런 종류의 확산탄 생산을 중단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으며, 앞으로 12개월 안에 생산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공개적인 발표를 한 바도 없다.

1.2 확산탄 생산기업 투자 <한국 금융기관 발취>

1.2.38 칸서스자산운용 (한국)

자산운용

2013년 3월 31일, 칸서스자산운용은 한화 주식의 0.17%를 보유 혹은 운용하고 있다. 이는 미화 380만 달러(약 40억 원)에 상당한다.¹⁰⁵

2013년 3월 31일, 칸서스자산운용은 풍산 주식의 0.50%를 보유 혹은 운용. 이는 미화 340만 달러(약 36억 원)에 상당한다.¹⁰⁶

1.2.40 대우증권 (한국)

투자은행

2011년 6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대우증권은 200억 원을 인수했다.¹⁰⁷

2011년 11월, 한화는 1,8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대우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했다.¹⁰⁸

1.2.43 동부증권 (한국)

투자은행

2011년 6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100 억 원을 인수했다.¹⁰⁹

2011년 9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했다.¹¹⁰

2011년 11월, 한화는 18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했다.¹¹¹

1.2.46 유진투자증권 (한국)

투자은행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유진투자증권은 그 중 100억원을 인수했다.¹¹²

2011년 6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유진투자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했다.¹¹³

2011년 9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유진투자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했다.¹¹⁴

2011년 11월, 한화는 18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유진투자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했다.¹¹⁵

1.2.57 하나금융 (한국)

대출

2011년 6월, 한화는 하나금융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으로부터 2012년 12월 만기의 신용대출 500억 원을 확보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¹¹⁶

투자은행

2011년 9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투자자모집역할을 하는 공동주간사 중 하나로 하나금융 자회사인 하나대투증권은 3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¹⁷

2011년 11월, 한화는 18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공동주간사 중 하나인 하나대투증권은 2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¹⁸

2012년 6월, 풍산은 7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용자 상환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나금융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다섯 은행 중 하나인 하나대투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¹⁹

2012년 6월, 한화는 15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나금융의 자회사이자 두 개의 공동주간사 중 하나인 하나대투증권은 3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²⁰

2013년 4월, 풍산은 1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도 및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나금융의 자회사인 하나대투증권은 세 개의 공동주간사 중 하나로 2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²¹

1.2.58 한화그룹 (한국)

투자은행

2010년 8월, 한화는 1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한화그룹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2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²²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한화그룹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²³

2011년 6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한화그룹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2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²⁴

2011년 9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한화그룹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3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²⁵

2011년 11월, 한화는 18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한화그룹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3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²⁶

2012년 7월, 한화는 15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한화그룹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증권은 3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²⁷

2012년 12월, 한화는 15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부채 차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화그룹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투자증권은 3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²⁸

2013년 4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부채 차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화그룹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화투자증권은 3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²⁹

자산운용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8월 31일 사이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과 한화S&C는 한화 주식 2.29%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미화 5480만 달러(약 580억 원)에 상당한다.¹³⁰

2013년 8월 31일, 한화그룹의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은 풍산 주식 0.22%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미화 140만 달러(약 15억 원)에 상당한다.¹³¹

1.2.59 한양증권 (한국)

투자은행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양증권은 그 중 200억 원을 인수했다.¹³²

2011년 6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양증권은 그 중 100억 원을 인수했다.¹³³

1.2.65 현대그룹 (한국)

투자은행

2013년 4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부채 차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현대그룹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현대증권은 그 중 200억 원을 인수했다.¹³⁴

1.2.66 현대중공업 (한국)

투자은행

2010년 8월, 한화는 1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하이투자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³⁵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하이투자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³⁶

2011년 6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하이투자증권은 2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³⁷

2011년 9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하이투자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³⁸

2011년 11월, 한화는 18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하이투자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³⁹

2012년 12월, 한화는 15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부채 차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하이투자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⁴⁰

2013년 4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부채 차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하이투자증권은 4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⁴¹

자산운용

2013년 3월 31일, 현대중공업은 자회사인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풍산 주식의 0.20%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미화 140만 달러(약 15억 원)에 상당한다.¹⁴²

1.2.72 KB 금융 (한국)

대출

2010년 12월, 한화는 KB금융의 자회사인 KB 국민은행으로부터 2년 신용대출 800억 원을 확보했다. 수익은 일상적인 기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¹⁴³

투자은행

2010년 8월, 한화는 1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KB 금융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KB 국민은행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했다.¹⁴⁴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KB 금융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KB 국민은행은 그중 200억 원을 인수했다.¹⁴⁵

2011년 6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KB 금융의 자회사이자 공동주간사인 KB 국민은행은 그중 400억 원을 인수했다.¹⁴⁶

2011년 9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KB 금융의 자회사이자 공동주간사인 KB 국민은행은 그중 300억 원을 인수했다.¹⁴⁷

2011년 11월, 한화는 18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KB 금융의 자회사이자 공동주간사 중 하나인 KB 국민은행은 그중 400억 원을 인수했다.¹⁴⁸

2012년 6월, 풍산은 7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용자 상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KB 금융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다섯 은행 중 하나인 KB 국민은행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했다.¹⁴⁹

2012년 7월, 한화는 15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KB 금융의 자회사이자 두 공동주간사 중 하나인 KB 국민은행은 그중 400억 원을 인수했다.¹⁵⁰

2013년 4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부채 차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KB 금융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 중 하나인 KB 국민은행은 그중 200억 원을 인수했다.¹⁵¹

2013년 4월, 풍산은 1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KB 금융의 자회사이자 세 공동주간사 중 하나인 KB 국민은행은 그중 200억 원을 인수했다.¹⁵²

자산관리

2013년 4월 30일, KB 그룹의 자회사인 KB 자산관리는 풍산 주식의 0.12%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79만 달러(약 8억 원)에 상당한다.¹⁵³

1.2.74 한국산업은행 (한국)

투자은행

2011년 5월, 풍산홀딩스는 1,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네 은행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300억 원을 인수했다.¹⁵⁴

2011년 6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약 3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⁵⁵

2011년 9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5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⁵⁶

2011년 11월, 한화는 18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2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⁵⁷

2012년 7월, 한화는 15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2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⁵⁸

2012년 12월, 한화는 15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부채 차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5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⁵⁹

2013년 4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부채 차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두 공동주간사 중 하나인 한국산업은행은 5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⁶⁰

1.2.75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

투자은행

2010년 8월, 한화는 1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⁶¹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⁶²

2011년 6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⁶³

2011년 9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⁶⁴

2011년 11월, 한화는 18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⁶⁵

2012년 7월, 한화는 15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그중 2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⁶⁶

2012년 12월, 한화는 15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부채 차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이자 공동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은 그중 3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⁶⁷

2013년 4월, 한화는 1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부채 차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⁶⁸

2013년 4월, 풍산은 1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도 및 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⁶⁹

자산운용

2013년 8월 31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한화 주식의 0.10%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미화 210만 달러(약 22억 원)에 상당한다.¹⁷⁰

2013년 8월 31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풍산 주식의 1.26%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미화 810만 달러(약 86억 원)에 상당한다.¹⁷¹

1.2.83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한국)

자산운용

2013년 8월 31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풍산 주식의 0.37%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240만 달러(약 25억 원)에 상당한다.¹⁷²

1.2.84 미래에셋금융그룹 (한국)

자산운용

2013년 4월 30일부터 2013년 7월 31일 사이 제출시기에 미래에셋금융그룹은 풍산 주식의 0.25%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160만 달러(약 17억 원)에 상당한다.¹⁷³

2013년 4월 30일부터 2013년 8월 31일 사이 제출시기에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자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화 주식의 0.19%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430만 달러(약 46억 원)에 상당한다.¹⁷⁴

1.2.88 국민연금공단 (한국)

자산운용

2012년 2월 2일, 국민연금공단은 풍산 주식의 9.26%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미화 7860만 달러(약 832억 원)에 상당한다.¹⁷⁵

2012년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은 한화 주식의 6.75%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미화 1억 6210만 달러(약 1천 717억 원)에 상당한다.¹⁷⁶

1.2.104 삼성 (한국)

투자은행

2010년 8월, 한화는 1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삼성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주간사였던 삼성증권은 그 중 400 억 원을 인수했다.¹⁷⁷

2011년 2월, 한화는 11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삼성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삼성증권은 그 중 100 억 원을 인수했다.¹⁷⁸

자산운용

2013년 8월 31일, 삼성의 자회사인 삼성자산운용은 한화 주식의 0.79%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미화 1750만 달러(약 185억 원)에 상당한다.¹⁷⁹

2013년 8월 31일, 삼성의 자회사인 삼성자산운용은 풍산 주식의 1.08%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700만 달러(약 74억 원)에 상당한다.¹⁸⁰

1.2.109 신한은행 (한국)

투자은행

2011년 2월, 한화는 1100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신한은행은 그중 100 억 원을 인수했다.¹⁸¹

2011년 5월, 풍산홀딩스는 1000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신한은행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 네 은행 중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200 억 원을 인수했다.¹⁸²

2011년 6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신한은행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 네 은행 중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100 억 원을 인수했다.¹⁸³

2011년 9월, 한화는 2000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신한은행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100 억 원을 인수했다.¹⁸⁴

2011년 11월, 한화는 18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신한은행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100억 원을 인수했다.¹⁸⁵

2012년 6월, 풍산홀딩스는 7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용자 상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신한은행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다섯 은행 중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100억 원을 인수했다.¹⁸⁶

2012년 7월, 한화는 15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신한은행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100억 원을 인수했다.¹⁸⁷

2012년 12월, 한화는 15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부채 차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신한은행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100억 원을 인수했다.¹⁸⁸

2013년 4월, 한화는 1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부채 차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신한은행의 자회사이자 두 공동주간사 중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300억 원을 인수했다.¹⁸⁹

2013년 4월, 풍산은 1000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도 및 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신한은행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신한금융투자는 100억 원을 인수했다.¹⁹⁰

1.2.110 신영증권 (한국)

자산운용

2013년 3월 31일, 신영증권은 풍산 주식의 0.50%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350만 달러(약 37억 원)에 상당한다.¹⁹¹

2013년 3월 31일, 신영증권은 풍산홀딩스 주식의 1.82%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300만 달러(약 32억 원)에 상당한다.¹⁹²

1.2.111 SK 증권 (한국)

투자은행

2011년 5월, **풍산홀딩스**는 1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의 네 은행 중 하나인 SK 증권은 3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⁹³

2012년 6월, **풍산**은 7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용자 상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주간사인 SK 증권은 3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⁹⁴

2012년 12월, **한화**는 15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부채 차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채권발행단 중 하나인 SK 증권은 2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⁹⁵

2013년 4월, **풍산**은 1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였다. 수익은 일반 사업 및 부채 상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세 공동주간사 중 하나인 SK 증권은 300억 원을 인수하였다.¹⁹⁶

1.2.123 동양그룹 (한국)

투자은행

2010년 8월, **한화**는 1000 억 원 상당의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동양그룹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동양증권은 그 중 100억 원을 인수했다.¹⁹⁷

자산운용

2013 년 6월 30일, 동양그룹의 자회사인 동양자산운용은 **풍산** 주식의 0.21%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미화 117만 달러(약 12억 원)에 상당한다.¹⁹⁸

1.2.124 트러스트자산운용 (한국)

자산운용

2012 년 1월 9일부터 2013 년 7월 8일 사이 제출시기에 트러스트자산운용은 **풍산** 주식의 6.46%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미화 3870만 달러(약 410억 원)에 상당한다.¹⁹⁹

1.2.138 우리금융 (한국)

투자은행

2011년 2월, 한화는 11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우리금융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그중 100억 원을 인수했다.²⁰⁰

2011년 5월, 풍산홀딩스는 1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우리금융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네 은행 중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200억 원을 인수했다.²⁰¹

2011년 6월, 한화는 2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우리금융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200억 원을 인수했다.²⁰²

2011년 9월, 한화는 2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우리금융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했다.²⁰³

2011년 11월, 한화는 18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단기채무상환 및 일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우리금융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했다.²⁰⁴

2012년 6월, 풍산은 7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용자 상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우리금융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다섯 은행 중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했다.²⁰⁵

2013년 4월, 풍산은 1000 억 원 상당의 3 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수익은 일반 사업 및 부채 상환 용도로 사용되었다. 우리금융의 자회사이자 채권발행단의 하나인 우리투자증권은 100억 원을 인수했다.²⁰⁶

1.2.139 유리자산운용 (한국)

자산운용

2013 년 3월 31일, 유리자산운용은 풍산홀딩스 주식의 0.95%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미화 160만 달러(약 17억 원)에 상당한다.²⁰⁷

2013 년 8월 31일, 유리자산운용은 풍산 주식의 0.20%를 보유 혹은 운영하였는데 이는 미화 130만 달러(약 14억 원)에 상당한다.²⁰⁸

제2장

명예의 전당: 투자철회를 이끌고 있는 금융기관들

2.1.0 도입 및 연구방법

이전 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수 금융기관들이 확산탄에 관해서는 책임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확산탄이 논란이 되는 무차별 살상무기라는 국제적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확산탄 생산기업에 투자한다. 일부 금융기관은 투자를 중립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거나 윤리적 결정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여기고 있다. 나머지는 윤리적 저축 및/또는 투자상품을 언급하며 이를 고객의 책임으로 전가한다. 이는 고객들은 어떤 기업들이 투자 펀드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한 기업들이 어떠한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지 항상 인식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로써 금융기관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확산탄은 군사 목표물과 민간 목표물을 구별해내지 못한다. 바로 이점 때문에 확산탄은 무차별 살상무기가 되며 국제인도법에 상충된다. 확산탄금지협약은 확산탄 금지에 있어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확산탄금지협약의 여파로 더 많은 수의 금융기관들이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명확하고 광범위한 정책을 이행할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금융기관들은 확산탄 생산기업을 적절한 사업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들은 사업관계의 본질과 자사가 투자하려는 확산탄 생산기업의 활동과 무관하게 확산탄 생산기업과 맺는 사업관계 자체를 묵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있어 어떤 기업이 확산탄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것이 해당 기업 총매출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와 무관하게 해당 기업을 알맞지 않은 사업파트너로 만든다. 우리는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하며 다른 금융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여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목록을 명예의 전당에 올렸다.

• 선별 및 연구

확산탄에 대한 정책을 가진 금융기관들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출처(NGO 보고서, 사전조사^{screening} 에이전시 정보, 금융기관의 보고서와 웹사이트, 전세계 활동가들 및 기타 공개 출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조사했다. 우리는 접근성과 언어적 한계(영어와 네덜란드어)를 안고 작업했다. 어떤 경우에는 영어나 네덜란드어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곳에서는 투자철회 정책에 대한 번역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어나 네덜란드어로 된 정책으로 제한했다. 명예의 전당은 포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열거된 금융기관들의 목록이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전세계 모든 금융기관의 정책을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개된 정책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이 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는 확산탄 투자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가진 금융기관이 자사의 정책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이를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해 우리가 해당 기업들을 명예의 전당이나 명예의 전당 후보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도록 그러한 금융기관들을 초대한다.

보통 은행들의 그룹 차원에서 투자정책이 설정되고 그룹이 직·간접적으로 자회사들을 감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룹 차원의 정책을 조사했다. 우리는 우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교차확인하고 우리가 이들의 정책을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목록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연락했다. 우리는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책만을 포함했다.

금융기관은 명예의 전당에 포함되기 위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투자자는 확산탄 정책에 대해 투명하고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투자자가 확산탄에 대한 정책이나 그에 대한 요약내용을 공개했음을 의미한다.
- 해당 금융기관의 정책은 확산탄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외해야 한다.(과거의 투자에 대한 철회 및 추가적 투자 방지).
- 정책은 ‘전부 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를 가져야 한다.
 - 어떠한 형태의 확산탄 생산기업에도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
 - 확산탄 생산기업의 어떠한 형태의 활동에도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
 - 어떠한 형태의 투자자에 의한 금융지원이나 투자에도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명예의 전당에 있는 각 금융기관이 요주의 기업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에 투자했는지를 조사했다. 이것은 수치의 전당에서 사용된 기준치 아래 주식 보유도 포함한다. 우리가 그렇게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확산탄을 제외하기로 한 정책의 발표 이후에 확산탄 생산기업과 가지게 되는 어떠한 형태의 관여든 그것이 그러한 정책의 허술한 이행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명예의 전당에 열거된 금융기관이 확산탄 생산기업과 금전적 연결고리를 가진다는 증거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이를 우리 조사결과와 대조해보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했다. 금융기관의 투자철회를 방지하는 법적 제약이 없을 때, 우리는 그 기관을 명예의 전당에서 제외했다.

• 결과

이 장은 확산탄 생산기업을 제외하는 명확하고 광범위한 정책을 가진 금융기관에 대한 우리의 조사결과를 제공한다.

각 섹션에는 각 금융기관의 명칭, 소속 국가, 짧은 프로필과 정책의 요약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가지 범주 내에서 알파벳순으로 금융기관을 나열했다: 윤리적 은행, 국영연금기금, 주류 민간금융기관

국영연금기금

연금기금은 독립적인 법인체를 구성하는 자산의 집합체를 말한다. 연금 보험료 납입으로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얻게 된다.²⁰⁹ 중앙정부는 연금기금의 일부를 관리한다. 이는 중앙정부에 이 기금들에 대한 투자전략과 포트폴리오의 관리 책임을 있어 중앙 정부의 책임을 만든다.

2.1.4 보상기금(룩셈부르크)

"Fonds de Compensation de la Securite Sociale, SICAV-FIS"는 2007년에 룩셈부르크의 초과 연금 적립금의 일부를 투자하는 전문투자기금으로 설립되었다.²¹⁰

2010년 9월, 보상기금 관리이사회는 확산탄이나 대인지뢰 생산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제외목록에 10개의 기업을 포함시켰다.²¹¹ 2011년 말, 동 기금은 룩셈부르크가 비준한 확산탄금지협약이나 다른 국제협약들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들을 제외하는 규칙을 제정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기준을 공식화했다. 2013년 5월, 룩셈부르크 외교부는 동 기금이 문제가 될만한 자산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²¹²

동 기금 관리이사회는 GES 투자서비스를 선임해 투자후보군(Investment Universe)을 분석해 이 같은 국제협약들을 존중하지 않는 회사들을 확인하도록 했다. 첫 번째 제외 목록은 2011년 11월에 작성되었다. 목록은 매 반기마다 개정될 것이다.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모든 펀드 매니저는 그 목록을 적용하고 제외목록에 있는 회사들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도록 명령을 받게 되었다.²¹³ 항공우주 및 국방분야에서 확산탄과 관련해 다음의 회사들이 제외목록에 포함되었다.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젠코프, 제너럴 다이내믹스, 한화, L-3 커뮤니케이션즈, 록히드 마틴, 텍스트론.²¹⁴

2.1.5 미래기금(호주)

미래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한 투자수익을 발생시킴으로써 향후 호주정부의 공공분야 노령연금 부채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미래기금법에 의해 설치되었다.²¹⁵

호주는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다수의 국제협약과 조약들을 비준했다. 기금의 이사회가 어떤 주체의 행위나 또는 자금지원 활동이 그런 협약이나 조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기금의 포트폴리오에서 투자 제외 또는 철회를 고려할 것이다.²¹⁶ 호주 상원의 재정 및 행정 입법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미래기금 관리기관의 답변은 의심의 여지없이 동 기금은 확산탄 생산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동 기금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와 2차자료 조사(Desktop Research)를 병행해 도출해 낸 제외 목록을 사용한다.²¹⁷ 이 목록은 2013년에 공개되었다. 확산탄 및 대인지뢰

관련 이유로 제외된 회사들은 다음과 같다. Aerotech,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제너럴 다이내믹스, 한화, 카만, L-3 커뮤니케이션즈, 라센&투브로, 록히드 마틴, 풍산, 레이시온,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텍스트론.²¹⁸

2.1.6 국민연금 준비기금(아일랜드)

아일랜드 국민연금 준비기금(NPRF)은 인구의 연령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부터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부문 연금의 비용을 최대한 충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민연금 준비기금위원회는 기금을 관리한다. 재무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한다.²¹⁹

2008년 3월 3일, 아일랜드 국민연금 준비기금은 확산탄 생산과 관련된 6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금 2700만 유로를 회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확산탄 생산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라는 정부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아일랜드 정부는 확산탄을 금지하는 확산탄금지협약 제정 논의에 참여하고 있었다. NPRF는 한 개 기업(탈레스)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록히드 마틴,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L-3 커뮤니케이션즈)에서 투자기금을 회수했는데, 탈레스의 경우는 동 기금이 탈레스를 확산탄 생산기업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²²⁰

2008년 12월 2일, 아일랜드는 2008 확산탄및대인지뢰법을 통과시켰다. NPRF의 정책은 이 법을 기반으로 한다. 법이 통과된 이후, 아일랜드 국민연금 준비기금은 7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고 아직 투자하고 있지 않던 4개기업의 경우는 투자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 NPRF가 이 기업들을 제외한 이유는 확산탄이나 대인지뢰의 생산에 관여하고 있거나 이러한 무기들의 생산으로부터 자사를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2012 연례보고서에서 제외된 회사들의 목록은 에어로스타,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Aryt산업, 두산, 제너럴 다이내믹스, 한화, L-3 커뮤니케이션즈,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풍산, 레이시온,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텍스트론이다.²²¹

2.1.7 뉴질랜드 연기금(뉴질랜드)

뉴질랜드 연기금은 국가의 연금보험료를 축적하고 이를 투자한다. 뉴질랜드 연기금은 향후 뉴질랜드 연금 급여 지불에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려는 목적으로 2001년 조성되었다. 세계 다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2050년까지 은퇴하는 사람의 수가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연금 급여 지급에 드는 비용 역시 이 기간에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장관의 추천의 의해 총독이 임명하는 연금자산관리사(guardians)가 기금을 관리한다.²²²

연금자산관리사는 국제협약, 뉴질랜드 법률 및 행정조치를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으로 책임투자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연금자산관리청 웹사이트는 이들이 기업들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기업과의 대화를 강하게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자산관리청은 2008년 12월에 확산탄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를 결정했다. 기업이 확산탄 생산을 중단하도록 설득될 가능성이 희박한데 더해 확산탄금지협약과 뉴질랜드 정부의 모범을 볼 때 연금자산관리청은 해당 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투자철회를 결정하기 이전인 2007년 6월 30일, 뉴질랜드 연기금은 후에 외부 스크리닝 에이전시가 잠재적으로 확산탄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해준 기업들에 총 1천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있었다 2008년 3월, 연금자산관리청은 확산탄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루는 데에 있어 대화·투자철회·배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²²³ 연금자산관리청은 2008년 12월 3일 뉴질랜드가 확산탄금지협약에 서명한 이후 이 기업들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²²⁴

기금의 웹사이트의 목록에는 확산탄, 핵폭발물, 대인지뢰에 관여를 이유로 제외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목록은 외부 스크리닝 에이전시에서 제공한 정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한다. 목록에는 알리안트 테크시스템, 밥콕&윌콕, 벡텔 그룹, 플루오르, 한화, 허니웰, 헌팅턴 잉갈스, 제이콥 엔지니어링 그룹, 크라토스 디펜스&세큐리티 그룹, 록히드마틴, 노스롭 그루먼, 풍산, 세르코 그룹, 싱가포르 테크놀로지스 엔지니어링, 텍스트론, URS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²²⁵ 2013년 6월, 기존에 제외된 4개 기업(제너럴 다이내믹스, L-3 커뮤니케이션즈, 레이시온, 굿리치)은 포트폴리오에 다시 들어간 것이 명백했다.²²⁶

2.1.8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 글로벌 (노르웨이)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은 자국의 석유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막대한 석유 수익으로 인해 정부연기금은 상당한 금융자산을 확보했다. 이 기금의 목적은 향후 몇 년간 급증할 공적 연금 지출 충당에 필요한 정부저축을 촉진시키고, 석유수익의 장기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²²⁷

2004년 노르웨이 정부는 정부연기금 윤리지침을 채택하였고, 2010년 3월 1일에 최신 개정판이 발표되었다. 이 지침의 제2절은 기금의 투자후보군(investment universe)에서 특정 기업들이 제외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기금의 자산은 다음과 같은 기업 혹은 그 기업의 통제를 받는 단위에 투자되어서는 안 된다.

- a) 일반적 사용이 기본적인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는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
- b) 담배를 생산하는 기업
- c) 기금 관리 지침 3.2절에 언급된 국가에 무기나 군사물자를 판매하는 기업"²²⁸

정부연기금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힘입어, 노르웨이 재무부는 윤리지침이 발효되자 몇몇 확산탄 생산 기업들을 투자에서 제외시켰다. 위원회의 2005년 6월 15일자 권고내용은 동 위원회가 확산탄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준다. 위원회는 확산탄을 군사적 목표물과 민간인 표적을 구별하지 못해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원칙에 반하는 무기로 정의한다.²²⁹

윤리위원회는 무엇이 확산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의 기술적 정의에 기초해 제외 권고를 내렸다.²³⁰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확산탄의 핵심 부품으로 간주되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제너럴 다이내믹스, 한화, L-3 커뮤니케이션즈, 록히드 마틴, 풍산, 레이시온, 탈레스, 텍스트론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²³¹ 2009년 9월, 탈레스가 확산탄 생산을 중단하자 위원회는 투자철회 입장을 번복했다.²³² 2011년 3월에는 확산탄 생산을 중단한 L-3 커뮤니케이션즈를 투자후보군에 재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²³³ 2013년,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와 록히드 마틴 역시 같은 이유로 투자제외 대상에서 벗어났다.²³⁴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투자제외 기업은 제너럴 다이내믹스, 한화, 풍산, 레이시온, 텍스트론이다.²³⁵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철저한 투명성으로 인해 더욱 신뢰를 얻게 되었다 이들은 윤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의 결정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1.9 스웨덴 연기금AP 1-4 (스웨덴)

AP 1 - 4는 스웨덴의 여섯 개 국영 연기금 중 네 개를 일컫는다. 스웨덴의 연금 시스템은 5개의 완충기금(buffer funds)과 적립식개인연금제도(premium pension system)라는 2중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5개 완충기금(AP1-4, AP6)은 현재의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인한 수입으로 연금급여를 지불하는 부과 방식(pay-as-you-go)으로 운용된다. 이 완충기금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화로 연금제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국가연기금 지불액이 세제수입을 초과했을 때 여분의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²³⁶

2007년 1월 1일, 윤리위원회로 불리는 합동윤리위원회는 스웨덴 국가연기금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연기금의) 투자대상 기업들이 스웨덴이 서명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범죄에 관여하지 않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AP1-4 국가연기금의 포트폴리오 보유를 감독하고 분석한다.²³⁷

오늘로 협약 체결에 따라 2008년 윤리위원회는 확산탄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위원회는 확산탄이나 그 부품을 생산 혹은 마케팅하고 있는 9개 기업을 찾아냈고 AP1-4 국민연기금이 이들 기업들을 투자후보군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그 이후 네 기금 모두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²³⁸

항공우주 및 국방 부문에서 제외된 기업으로는 알리안트 테크시스템즈, 엘빗 시스템, 젠코프, 제너럴 다이내믹스, L-3 커뮤니케이션즈,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텍스트론이 있다.²³⁹

2.1.10 스웨덴 연기금 AP7 (스웨덴)

AP7은 스웨덴의 여섯 개 국영연금 기금 중 하나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스웨덴의 연금 제도는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과방식(pay-as-you-go)과 적립식 개인연금인데, 적립식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지급이 스웨덴 연금청이 운용하는 기금에 투자된 개인 저축액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 피고용인들은 자신의 연금 자금을 운용하기 원하는 스웨덴연금청 기금을 선택하고 그 운용방식도 정할 수 있다. AP7 기금은 별도의 선호 운용방침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연금자금을 운용한다.²⁴⁰

2008년 6월, AP7은 확산탄과 핵무기에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²⁴¹

AP7 연례보고서에서 제외된 기업들을 나열했다. 확산탄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제외된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두산, 제너럴 다이내믹스, 한화, 제이콥스 엔지니어링 그룹, L-3 커뮤니케이션즈, 록히드 마틴,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텍스트론.²⁴²

국영 금융기관

앞에 나열된 국영 연금 기금은 정부의 모범 사례들이다. 이 국가들은 확산탄에 대한 확고한 비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확산탄 생산기업에 국영연금기금이 투자되지 않도록 행동한다.

2008-2009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정부의 은행 구제(bailout)는 경제적 지형을 변화시켰다. 많은 은행들은 현재 주주들 중에 정부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금융기관에게 정부가 서명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기회로, 새로운 상황을 만든다. 정부는 확산탄 생산기업에 은행의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확산탄 관련 은행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 주주로서의 지위를 활용할 수 있다.

미주

- 1 IKV Pax Christi and *Netwerk Vlaanderen*, “Worldwide Investments in Cluster Munitions: a Shared Responsibility”, October 2009, available at www.ikvpaxchristi.nl/media/files/worldwide-investments-in-clustermunitions-a-shared-responsibility_0.pdf, last viewed 21 September 2013.
- 2 IKV Pax Christi and *Netwerk Vlaanderen*, “Worldwide Investments in Cluster Munitions: a Shared Responsibility”, April 2010, May 2011 and June 2012 updates, available at www.ikvpaxchristi.nl/publicaties/themes, last viewed 21 September 2013.
- 3 Cluster Munition Coalition, “CMC Policy Papers on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May 2010, available at www.stopclustermunitions.org/wp/wp-content/uploads/2010/06/3a-cmc-policy-papers.pdf, last viewed 20 September 2013; Cluster Munition Coalition, “Briefing Paper on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English)”, September 2013, available at www.stopclustermunitions.org/wp/wp-content/uploads/2013/09/brief_eng13-september-2013_pdf.pdf, last viewed 21 September 2013.
- 4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global campaign on disinvestment, see www.stopexplosiveinvestments.org.
- 5 Lockheed Martin, written communication to IKV Pax Christi dated 29 April 2013.
- 6 Novethic, Caisse des Dépôts group, “2011 Survey. European Asset Owners ESG Perceptions”, p. 4, available at www.novethic.com/novethic/v3_uk/upload/ESG_Survey_2011.pdf, last viewed 10 October 2013.
- 7 Novethic, “Norm-based exclusions. How responsible investors handle controversial companies”, p. 9, available at www.novethic.com/novethic/v3_uk/upload/Norm-based_exclusions_EN_20120328.pdf, last viewed 19 September 2013.
- 8 Association Française de la Gestion Financière (AFG), “Recommandations sur l’interdiction du financement des armes à sous-munitions et des mines anti-personnel” (“Recommendations on the prohibition of financing of cluster munitions and anti-personnel mines”), April 2013, p.4, available from the IKV Pax Christi archives.
- 9 Stop Explosive Investments, “Campaigners call on South Korea’s poisoned pension scheme to disinvest from cluster munition producers”, 29 August 2013, available at www.stopexplosiveinvestments.org/news/26/59/Campaigners-call-on-South-Korea-s-poisoned-pension-scheme-to-disinvest-from-cluster-munition-producers, last viewed 21 September 2013.
- 10 Politiken.dk, “Cluster bomb and land mine investment should be banned”, 27 May 2013, available at politiken.dk/newsinenglish/ECE1980941/cluster-bomb-and-land-mine-investment-should-be-banned/, last viewed 20 September 2013.
- 11 Amnesty International, “Syria: government bombs rain on civilians”, 14 March 2013, p. 10, available at www.amnesty.org/en/library/asset/MDE24/009/2013/en/b2af5436-efaf-457c-b26a-88b5de622291/mde240092013en.pdf, last viewed 21 September 2013.
- 12 Oslo Conference on Cluster Munitions, “Declaration”, 22 – 23 February 2007, available at www.clusterconvention.org/files/2012/11/Oslo-Declaration-final-23-February-2007.pdf, last viewed 18 September 2013.
- 13 Article 1: “General Obligations and Scope of Application”, in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available at www.clusterconvention.org/files/2011/01/Convention-ENG.pdf, last viewed 18 September 2013.
- 14 Human Rights Watch, “Landmine and Cluster Munition Monitor fact sheet; Interpretative Issues and the 2008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15 April 2012, available at www.the-monitor.org/index.php/content/view/full/24871, last viewed 18 September 2013.
- 15 Cluster Munition Coalition, “CMC Policy Papers on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May 2010, available at www.stopclustermunitions.org/wp/wp-content/uploads/2010/06/3a-cmc-policy-papers.pdf, last viewed 21 September 2013; Cluster Munition Coalition, “Briefing Paper on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English)”, September 2013, available at www.stopclustermunitions.org/wp/wp-content/uploads/2013/09/brief_eng13-september-2013_pdf.pdf, last viewed 21 September 2013.
- 16 Article 2: “Definitions”, in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available at www.clusterconvention.org/files/2011/01/Convention-ENG.pdf, last viewed 18 September 2013.
- 17 Alliant Techsystems, “Business Groups”, *Alliant Techsystems* website (www.atk.com/business-groups/), viewed 18 September 2013.

-
- 18 Defense Daily, "Alliant-Aerojet team gets \$134 million CEM contract", 20 October 1992, available at www.highbeam.com/doc/1G1-12685990.html, last viewed 18 September 2013.
- 19 Lockheed Martin, "Lockheed Martin's Wind Corrected Munitions Dispenser Accomplishes Test and Production Milestones", 17 November 2000, available at www.lockheedmartin.com/us/news/press-releases/2000/november/LockheedMartinSWindCorrectedMunitio.html, last viewed 18 September 2013;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Illinois Peoria Division, "Final judgement United States of America vs. Alliant Techsystems and Aerojet-General Corporation", April 2004, available at www.alliantaction.org/scoop/s1go/1994/cbmsuit/pdf/judgement.pdf, last viewed 18 September 2013; Deagel, "WCMD", available at www.deagel.com/Bombs-and-Guidance-Kits/WCMD_a001069001.aspx, last viewed 18 September 2013.
- 20 U.S. Department of Defense, "Search", U.S. Department of Defense website (www.defense.gov/search/), viewed 18 September 2013.
- 21 Alliant Techsystems, "Air-to-Surface Missiles", Alliant Techsystems website (www.atk.com/Customer_Solutions_InternationalProducts/cs_ip_rm_sfw_rm.asp), viewed 23 February 2010.
- 22 Textron Defense Systems, "Textron Systems Awarded \$108M Contract for Sensor Fuzed Weapon Production", 8 March 2006, available at investor.textron.com/phoenix.zhtml?c=110047&p=irol-newsArticle&ID=963823&highlight, last viewed 19 August 2013.
- 23 U.S. Department of Defense, "U.S. DoD Contracts, No. 114-07", 31 January 2007, available at www.defenselink.mil/contracts/contract.aspx?contractid=3444, last viewed 19 August 2013.
- 24 U.S. Department of Defense, "U.S. DoD Contracts No. 126-09", 26 February 2009, available at www.defense.gov/Contracts/Contract.aspx?ContractID=3971, last viewed 19 August 2013.
- 25 U.S. Department of Defense, "U.S. DoD Contracts, No. 593-13", 20 August 2013, available at www.defense.gov/contracts/contract.aspx?contractid=5116, last viewed 27 August 2013.
- 26 Alliant Techsystems, "2011 Annual Report to Stockholders", May 2011, p.18, available at www.atk.com/wp-content/uploads/2012/09/annualreport_ATK_2011.pdf, last viewed 27 August 2013; Alliant Techsystems, "2012 Annual Report to Stockholders", May 2012, p.13, available at www.atk.com/wp-content/uploads/2012/09/annualreport_ATK_20121.pdf, last viewed 27 August 2013; Alliant Techsystems, "2013 Annual Report to Stockholders", May 2013, p. 10, available at www.atk.com/wp-content/uploads/2013/06/ATK-2013-Annual-Report-to-Stockholders-10-K-Wrap-Print-PDF.pdf, last viewed 27 August 2013.
- 27 Alliant Techsystems, "2013 Annual Report to Stockholders", May 2013, p. 10, available at www.atk.com/wp-content/uploads/2013/06/ATK-2013-Annual-Report-to-Stockholders-10-K-Wrap-Print-PDF.pdf, last viewed 27 August 2013.
- 28 Council on Ethics for the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exclusion of Alliant Techsystems Inc. from the investment universe of the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Letter to the Ministry of Finance, 2 May 2013, available at www.regjeringen.no/pages/38433495/atk_e.pdf, last viewed 19 August 2013.
- 29 Email by Roos Boer from IKV Pax Christi to Alliant Techsystems dated 26 August 2013.
- 30 Bloomberg Businessweek, "Company Overview of China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Corporation", Bloomberg Businessweek website (investing.businessweek.com/research/stocks/private/snapshot.asp?privcapid=24623232), viewed 5 September 2013.
- 31 Sichuan Academy of Aerospace Technology, "WS-1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MLRS)", Sichuan Academy of Aerospace Technology website (scaat.spacechina.com/index.asp?modelName=e-products-detail&FractionNo=&titleno=PROENG00&recno=2), viewed 5 September 2013; Sichuan Academy of Aerospace Technology, "WS-1E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MLRS)", Sichuan Academy of Aerospace Technology website (scaat.spacechina.com/index.asp?modelName=e%2Dproducts%2Ddetail&FractionNo=&titleno=PROENG00&recno=4), viewed 5 September 2013; Sichuan Academy of Aerospace Technology, "WS-2 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GMLRS)", Sichuan Academy of Aerospace Technology website (scaat.spacechina.com/index.asp?modelName=e%2Dproducts%2Ddetail&FractionNo=&titleno=PROENG00&recno=5), viewed 5 September 2013; Sichuan Academy of Aerospace Technology, "WS-1B 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GMLRS)", Sichuan Academy of Aerospace Technology website (scaat.spacechina.com/index.asp?modelName=e%2Dproducts%2Ddetail&FractionNo=&titleno=PROENG00&recno=3), viewed 5 September 2013.

-
- 32 ArmyGuide, "A100", *ArmyGuide* website (www.army-guide.com/eng/product4437.html), viewed 5 September 2013; Dullum, O., "Cluster weapons – military utility and alternatives", Norwegian Defence Research Establishment (FFI), 1 February 2008, available at www.ffi.no/no/Rapporter/07-02345.pdf, last viewed 27 August 2013; GlobalSecurity, "WS-1 WeiShi [Guardian]", last updated 11 July 2011, *GlobalSecurity* website (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hina/ws-1.htm), viewed 5 September 2013.
- 33 Hanwha Corporation, "Company overview", *Hanwha Corporation* website (english.hanwhacorp.co.kr/Company/Overview/About.jsp), viewed 19 August 2013.
- 34 Council on Ethics for the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Recommendation on exclusion of the companies Rheinmetall AG and Hanwha Corp.", Letter to the Ministry of Finance, 15 May 2007, available at www.regjeringen.no/pages/2041987/Rheinmetall%20and%20Hanwha,%20Unofficial%20English%20transla.pdf, last viewed 19 August 2013.
- 35 The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has excluded Hanwha in 2007. Its Council on Ethics justified this decision as follows: "The South Korean company Hanwha Corporation produces various forms of military equipment, among these are different types of munitions. The company's website shows a picture and description of what it calls a "scattering bomb."
- The term "scattering bomb" is not a commonly used designation for weapons. From its context it must be assumed that the "scattering" refers to bomblets which are scattered over the target area, which is characteristic of cluster munitions. In the company's description of the weapon, it is stated that its intended use is to "destroy massed enemy positions", which is the most common usage of cluster munitions. A picture of the weapon seems to show a canister which is filled with a large number of submunitions. Although the Council has been unable to find further information on this weapon, it seems obvious that this is a category of cluster munitions that has previously led to exclusion of companies from the Fund.
- Furthermore, in the *Jane's Missiles and Rockets* database, there is description and pictures of the weapon from the *IDEX Arms Exhibition* in Abu Dhabi, UAE, in February 2007. It is described that Hanwha Corporation has on exhibit a "lightweight 70 mm MLRS-system" with associated cluster munitions.
- At the Council's request, Norges Bank has written to the company to inquire whether the company produces cluster munitions, and specifically to verify whether the "Scattering Bomb" is a cluster weapon.
- The company responded to the enquiry on May 7th, 2007, and clarified the following:
- "Hanwha Corporation was officially designated as a defence contractor in 1974. Since then, it has specialised in munitions, whose production process has been under strict government control and all of which have been supplied only to the Korean government. Hanwha Corporation has manufactured MLRS and 2.75" MP5M5, which can be classified as cluster/cargo munitions and has also produced KCBU-58B in the past. However, we have developed and supplied such items i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s initiative for self-defence, not for any other unethical purpose."
- By this, the company acknowledges its production of aerial and artillery delivered cluster munitions.
- Source: Council on Ethics for the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Recommendation on exclusion of the companies Rheinmetall AG and Hanwha Corp.", Letter to the Ministry of Finance, 15 May 2007, available at www.regjeringen.no/pages/2041987/Rheinmetall%20and%20Hanwha,%20Unofficial%20English%20transla.pdf, last viewed 19 August 2013.
- 36 Hanwha Corporation, "130 mm Multiple Rocket Launcher System", *Hanwha Corporation* website (english.hanwhacorp.co.kr/pdtt/exp/def_pdt/ro/index.asp), viewed 23 February 2010.
- 37 Hanwha Corporation, "2.75 Inch Rockets, (HE M151, HEDP M247, MP5M K224)", *Hanwha Corporation* website (english.hanwhacorp.co.kr/pdtt/tr/dep/ro/1184768_1220.asp), viewed 23 February 2010.
- 38 Hanwha Corporation, "Defense business: Precision Ammunition System", *Hanwha Corporation* website (english.hanwhacorp.co.kr/BusinessArea/Explosives/Defense/Ammunition/Ammunition.jsp), viewed 18 September 2013.
- 39 Handicap International and Facing Finance, "Streubomben: Die "heimlichen" Hersteller" ("Cluster bombs: the "secret" manufacturers"), May 2011, available at www.handicap-international.de/fileadmin/redaktion/pdf/investitionen_produktion_2011.pdf, last viewed 19 August 2013.
- 40 Hanwha Corporation, "Percussion Fuse", *Hanwha Corporation* website (english.hanwhacorp.co.kr/BusinessArea/Explosives/Defense/Fuse/Fuse.jsp), viewed 21 March 2012.
- 41 Hanwha Corporation, "Product Information, Explosives, Defense Products, High Explosives", *Hanwha Corporation* website (english.hanwhacorp.co.kr/pdtt/exp/def_pdt/he/index.asp), viewed 23 February 2010.

- 42 Council on Ethics for the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Recommendation on Exclusion of the companies Rheinmetall AG and Hanwha Corp.", Letter to the Ministry of Finance, 15 May 2007, available at www.regjeringen.no/pages/2041987/Rheinmetall%20and%20Hanwha,%20Unofficial%20English%20transla.pdf, last viewed 19 August 2013.
- 43 Il Jae Lee, Second Secretary,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outh Korea, 4 April 2012, in response to a questionnaire by the Landmine and Cluster Munition Monitor, quoted in: Landmine and Cluster Munition Monitor, "Cluster Munition Monitor 2012", September 2012, p. 18, available at www.the-monitor.org/cmm/2012/pdf/Cluster_Munition_Monitor_2012.pdf, last viewed 19 August 2013.
- 44 Norinco, "About Norinco – Introduction", *Norinco* website (www.norinco.com/c1024/english/aboutnorinco/index.html), viewed 27 August 2013.
- 45 Jane's Ammunition Handbook, "130 mm NORINCO Type 59 cargo projectile (China), Field artillery", Jane's Ammunition Handbook 2001-2002; SinoDefence, "Type 59 130mm Towed Gun", 20 February 2009, *SinoDefence* website (www.sinodefence.com/army/artillery/type59towed_130mm.asp), viewed 27 August 2013.
- 46 SinoDefence, "250kg cluster bomb", *SinoDefence* website (www.sinodefence.com/airforce/weapon/bomb_cluster.asp), viewed 27 August 2013; Jane's Air Launched Weapons, "NORINCO 250 kg Type 2 Cluster Bomb (China), Bombs - Cluster and dispenser munitions", *Jane's* website (www.janes.com/articles/Janes-Air-Launched-Weapons/NORINCO-250-kg-Type-2-Cluster-Bomb-China.html), viewed 21 March 2012.
- 47 SinoDefence, "Type 90 122mm Multiple Rocket Launcher", *SinoDefence* website (www.sinodefence.com/army/mrl/type90.asp), viewed 27 August 2013; Army Guide, "Type 90/B", *Army Guide* website (www.army-guide.com/eng/product4438.html), viewed 27 August 2013; Dullum, O., "The Rocket Artillery Reference Book", Norwegian Defence Research Establishment (FFI), 30 June 2010, available at rapporter.ffi.no/rapporter/2009/00179.pdf, last viewed 27 August 2013; Human Rights Watch, "Q & A: 122mm Cluster Munition Rockets", 20 October 2006, available at www.hrw.org/news/2006/10/19/q-122mm-cluster-munition-rockets, last viewed 27 August 2013.
- 48 Norinco, "Norinco participates in AAD 2008", *Norinco* website (www.norinco.com/c1024/english/newscenter/content_55.html), viewed 27 August 2013.
- 49 Army Recognition, "AR1A MRLS Multiple rocket launcher system", *Army Recognition* website (www.armyrecognition.com/china_chinese_army_artillery_vehicles_systems_uk/ar1a_300mm_mrls_multiple_rocket_launcher_system_data_sheet_specifications_information_description_uk.html), viewed 26 August 2013.
- 50 Jane's: Eurosatory 2010, "Wide range of weapons from NORINCO", 16 June 2010; VPK, "The Chinese company Norinco offers MLRS AR2 and AR3 on the world market", 4 August 2010 (in Russian) (vpk.name/news/42674_kitaiskaya_kompaniya_norinco_predlagaet_na_mirovoi_rynok_rszo_ar2_i_ar3.html), viewed 26 September 2013; Defense Updates, "Chinese 300 mm PHL03 / PHL96 / AR1 / AR1A / AR2 / AR3 MLRS", 5 February 2013, *Defense Updates* website (defenseupdates.blogspot.nl/2013/02/chinese-300-mm-phl03-phl96-ar1-ar1a-ar2.html), viewed 26 September 2013.
- 51 Handicap International and Facing Finance, "Streubomben: Die "heimlichen" Hersteller" ("Cluster bombs: the "secret" manufacturers"), May 2011, available at www.handicap-international.de/fileadmin/redaktion/pdf/investitionen_produktion_2011.pdf, last viewed 19 August 2013.
- 52 Poongsan Corporation, "General Information", *Poongsan Corporation* website (www.poongsan.co.kr/eng/about-poongsan/general-information/), viewed 20 August 2013.
- 53 Poongsan Corporation, "Ammunition & Explosives", last modified 6 March 2012, available at www.poongsan.co.kr/kor/common/download.php?downpath=/kor/menu2&downfile=Poongsan_catalog_kor.pdf, last viewed 20 August 2013; Council on Ethics for the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Recommendation of 6 September 2006", 6 September 2006, available at www.regjeringen.no/en/dep/fin/Selected-topics/the-government-pension-fund/responsible-investments/Recommendations-and-Letters-from-the-Advisory-Council-on-Ethics/recommendation-of-6-september-2006x.html?id=449053#note2, last viewed 20 August 2013.
- 54 Jane's Defence Industry, "South Korea's Poongsan helps Pakistan manufacture ammunition", 23 November 2006.
- 55 Pakistan Inter Services Public Relations, "Press release", 12 April 2008, available at www.ispr.gov.pk/front/main.asp?o=t-press_release&id=344, last viewed 20 August 2013.

-
- 56 Amnesty International, "Deadly Movements: Transportation controls in the arms trade treaty", June 2010, available at www.amnesty.org/en/library/asset/ACT30/015/2010/en/7898d591-f17a-4d8b-9836-17c3b9a11df3/act300152010en.pdf, last viewed 20 August 2013.
- 57 Poongsan Corporation, "Ammunition & Explosives", last modified 6 March 2012, available at www.poongsan.co.kr/kor/common/download.php?downpath=/kor/menu2&downfile=Poongsan_catalog_kor.pdf, last viewed 20 August 2013.
- 58 Handicap International and Facing Finance, "Streubomben: Die "heimlichen" Hersteller" ("Cluster bombs: the "secret" manufacturers"), May 2011, available at www.handicap-international.de/fileadmin/redaktion/pdf/investitionen_produktion_2011.pdf, last viewed 20 August 2013.
- 59 Poongsan Corporation, "Ammunition & Explosives", last modified 26 November 2010, p.46, available at www.poongsan.co.kr/eng/files/ammo-catalogue.pdf, last viewed 20 August 2013.
- 60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Overview",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website (www.stengg.com/about-us/overview), viewed 20 August 2013.
- 61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Singapore Technologies Kinetics Ltd.",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website (www.stengg.com/about-us/companies/land-systems/st-kinetics), viewed 20 August 2013.
- 62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155 Cargo Round", 31 January 2007, available at www.stengg.com/upload/819iE0RQZJP675Q4S3P.pdf, last viewed 20 August 2013; Jane's Ammunition Handbook, "155 mm Advanced Material Engineering cargo projectile (Singapore), Field artillery", 17 July 2008.
- 63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155 Cargo Round", 31 January 2007, available at www.stengg.com/upload/819iE0RQZJP675Q4S3P.pdf, last viewed 20 August 2013.
- 64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to the United Nations, "Letter to the Cluster Munition Coalition", 6 February 2008, available at www.the-monitor.org/cm/2009/countries/pdf/Singapore%20MFA%20Cluster%20Response%202.2009.pdf, last viewed 20 August 2013.
- 65 AFP, "S'pore says no to cluster bomb pact", Brunei Times, 27 November 2008, available at www.bt.com.bn/en/asia_news/2008/11/27/spore_says_no_to_cluster_bomb_pact, last viewed 20 August 2013.
- 66 Landmine & Cluster Munition Monitor, "Cluster Munition Ban Policy: Singapore", last updated 8 December 2010, available at www.the-monitor.org/custom/index.php/region_profiles/print_theme/214#_ftn4, last viewed 20 August 2013.
- 67 Textron, "Our Businesses", *Textron* website (www.textron.com/about/our-businesses/index.php), viewed 18 September 2013; Textron Defense Systems, "Our Company", *Textron Defense Systems* website (www.textron.com/about/company/index.php), viewed 8 September 2013.
- 68 Textron Defense Systems, "Sensor Fuzed Weapon", 2010, available at www.textrondefense.com/sites/default/files/datasheets/sfw_datasheet.pdf, last viewed 26 August 2013; Textron Defense Systems, "Sensor Fuzed Weapon (SFW)", *Textron Defense Systems* website (www.textrondefense.com/products/smart-weapons-air/sfw), viewed 26 August 2013; Textron Defense Systems, "BLU-108 Submunition", 2010, available at www.textrondefense.com/sites/default/files/datasheets/blu108_datasheet.pdf, last viewed 26 August 2013.
- 69 Textron Systems,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 The Sensor Fuzed Weapon", Company presentation, March 2012.
- 70 Peter Lichtenbaum and Peter Trooboff, "The Relevance and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 to Textron's Sensor Fuzed Weapon", Covington & Burling LLP, 2 March 2012.
- 71 Moyes, R., "A Sensor Fuzed Solution?", *Landmine Action Campaign*, issue 13, 16 March 2007, p. 6, available at www.landmineaction.org/resources/Campaign%2013.pdf, last viewed 26 August 2013; AustCare & Handicap International, "Sensor-fuzing and SMARt submunitions: An unproven technology?", February 2008, available at www.handicap-international.fr/uploads/tx_basm08experts/Sensor_fuzed_and_SMARt_submunitions_an_unproven_technology_1_doc, last viewed 18 September 2013.
- 72 Gro Nystuen and Stuart Casey-Maslen (eds.),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 A commentary", *Oxford Commentaries o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 73 Textron Defense Systems, "Air Launched Products & Services", *Textron Defense Systems* website (www.textrondefense.com/products/airlaunched/sts.htm), viewed 27 January 2011; Textron Defense Systems, "BLU-108 Submunition", 2010, available at www.textrondefense.com/assets/pdfs/datasheets/blu108_datasheet.pdf, last viewed 21 March 2012.
- 74 Textron Systems, "Textron Systems Awarded \$108M Contract for Sensor Fuzed Weapon Production", 8 March 2006, *Textron Systems* website (investor.textron.com/phoenix.zhtml?c=110047&p=irol-newsArticle&ID=963823&highlight), viewed 26 August 2013.
- 75 U.S. Department of Defense, "U.S. DoD Contracts, No. 114-07", 31 January 2007, available at www.defenselink.mil/contracts/contract.aspx?contractid=3444, last viewed 26 August 2013.
- 76 U.S. Department of Defense, "U.S. DoD Contracts, No. 126-09", 26 February 2009, available at www.defense.gov/contracts/contract.aspx?contractid=3971, last viewed 26 August 2013.
- 77 Textron Systems, "Textron Systems Completes International Sale of Sensor Fuzed Weapon to Turkey", 1 November 2006, available at investor.textron.com/phoenix.zhtml?c=110047&p=irol-newsArticle&ID=963838&highlight, last viewed 26 August 2013.
- 78 Craig Hoyle, "Seoul picks Sensor Fused Weapon for F/A-50 fighter", *Flight International*, 8 April 2010, available at www.flightglobal.com/news/articles/seoul-picks-sensor-fused-weapon-for-fa-50-fighter-340353/, last viewed 27 August 2013; Textron, "Textron Fact Book 2006", 2007, available at www.textron.com/assets/resources/textron_fact_book_2006.pdf, last viewed 27 August 2013; Textron, "Textron Fact Book 2012", 2013, available at www.textron.com/assets/resources/2012_FB/textron/PDF/Textron-2012-Fact-Book.pdf, last viewed 27 August 2013.
- 79 Textron, "Textron Defense Systems and UAE Armed Forces Sign Sensor Fuzed Weapon Contract", 13 November 2007, *Textron* website (investor.textron.com/phoenix.zhtml?c=110047&p=irol-newsArticle&ID=1077007&highlight), viewed 27 August 2013; Seeking Alpha, "Textron Inc. Q2 2010 Earnings Call Transcript", 21 July 2010, available at seekingalpha.com/article/215607-textron-inc-q2-2010-earnings-call-transcript, last viewed 27 August 2013.
- 80 Textron Systems, "South Korea to Integrate Textron Defense Systems' Sensor Fuzed Weapon with FA-50 Aircraft", 6 April 2010, available at investor.textron.com/phoenix.zhtml?c=110047&p=irol-newsArticle&ID=1410038&highlight, last viewed 26 August 2013; Craig Hoyle, "Seoul picks Sensor Fused Weapon for F/A-50 fighter", *Flight International*, 8 April 2010, available at www.flightglobal.com/news/articles/seoul-picks-sensor-fused-weapon-for-fa-50-fighter-340353/, last viewed 26 August 2013.
- 81 U.S.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Republic of Korea – CBU-105D/B Sensor Fuzed Weapons", 4 June 2012, available at www.dsca.mil/sites/default/files/mas/korea_12.23_0.pdf, last viewed 27 August 2013.
- 82 U.S. Department of Defense, "U.S. DoD Contracts, No. 1122-10", 8 December 2010, available at www.defense.gov/contracts/contract.aspx?contractid=4425, last viewed 27 August 2013; Armed Forces International, "India and US Ink CBU-105 Cluster Bomb Deal", 10 December 2010, available at www.armedforces-int.com/news/india-and-us-ink-cbu-105-cluster-bomb-deal.html, last viewed 27 August 2013.
- 83 Textron, "Textron Defense Systems Receives \$257M Order to Supply Sensor Fuzed Weapons to Indian Air Force", 9 February 2011, available at investor.textron.com/phoenix.zhtml?c=110047&p=irol-newsArticle&ID=1526733&highlight, last viewed 27 August 2013.
- 84 Armed Forces International, "India and US Ink CBU-105 Cluster Bomb Deal", 10 December 2010, available at www.armedforces-int.com/news/india-and-us-ink-cbu-105-cluster-bomb-deal.html, last viewed 27 August 2013.
- 85 U.S.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Saudi Arabia – CBU-105 Sensor Fuzed Weapons", 13 June 2011, available at www.dsca.mil/sites/default/files/mas/saudi_arabia_10-03_0.pdf, last viewed 27 August 2013; Craig Hoyle, "Saudi Arabia requests Sensor Fuzed Weapon buy", *Flightglobal*, 15 June 2011, available at www.flightglobal.com/news/articles/saudi-arabia-requests-sensor-fuzed-weapon-buy-358061/, last viewed 27 August 2013;
- 86 Textron, "2012 Fact Book", 2013, available at www.textron.com/assets/resources/2012_FB/textron/PDF/Textron-2012-Fact-Book.pdf, last viewed 27 August 2013.
- 87 U.S. Department of Defense, "U.S. DoD Contracts, No. 593-13", 20 August 2013, available at www.defense.gov/contracts/contract.aspx?contractid=5116, last viewed 27 August 2013.

- 88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United States - Retrofit of F-16A/B Aircraft", 21 September 2011, available at www.us-taiwan.org/reports/2011_september21_taiwan_congressional_notifications.pdf, last viewed 27 August 2013.
- 89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U.S. DoD Contracts, No. 782-12", 28 September 2012, available at www.defense.gov/contracts/contract.aspx?contractid=4887, last viewed 27 August 2013.
- 90 Lockheed Martin, "Who we are", *Lockheed Martin* website (www.lockheedmartin.com/us/who-we-are.html), viewed 27 August 2013.
- 91 Andreas Parsch, "Lockheed Martin WCMD (Wind Corrected Munitions Dispenser)", 15 May 2006, available at www.designation-systems.net/dusrm/app5/wcmd.html, last viewed 27 August 2013; Lockheed Martin, "Lockheed Martin awarded \$40 million contract for WCMD-ER development", 16 June 2003, available at www.lockheedmartin.com/us/news/press-releases/2003/june/LockheedMartinAwarded40Mi.html, last viewed 27 August 2013.
- 92 Reinhilde Weidacher, Siemon Wezeman and Micha Hollestelle, "Cluster Weapons: Necessity or Convenience?", Pax Christi Netherlands, 2005, p. 42, available at www.stopclustermunitions.org/wp/wp-content/uploads/2008/07/cluster-munitions-pxc.pdf, last viewed 27 August 2013.
- 93 Lockheed Martin, "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XM30 Rocket (GMLRS XM30)", *Lockheed Martin* website (www.lockheedmartin.com/products/GuidedMLRSXM3/index.html), viewed 25 November 2009; US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Weapons Systems 2010", 2010, p. 120-121, available at www.fas.org/man/dod-101/sys/land/wsh2010/120.pdf, last viewed 27 August 2013.
- 94 Inside the Army, "Army Will Complete 2007 DPICM Sale Despite New Law From Congress", 23 March 2009, available at www.landmine.de/archiv/oeffentlichkeitsarbeit/news/news-detailseite/article/army-will-complete-2007-dpicm-sale-despite-new-law.html, last viewed 27 August 2013.
- 95 Email by Ms. Shamala N. Littlefield, Director Investor Relations at Lockheed Martin to IKV Pax Christi dated 18 May 2011.
- 96 Email by Mr. Greg Gardner, Director Investor Relations at Lockheed Martin to IKV Pax Christi dated 29 April 2013.
- 97 Splav, "About enterprise", *Splav* website (www.splav.org/en/about/index.asp), viewed 20 August 2013.
- 98 Splav, "Main Page", *Splav* website (www.splav.org/en/index.asp), viewed 20 August 2013.
- 99 Splav, "Armament", *Splav* website (www.splav.org/en/arms/smerch/index.asp), viewed 20 August 2013.
- 100 Splav, "Smerch", *Splav* website (splav.org/en/arms/smerch/index.asp), viewed 20 August 2013.
- 101 Ian, K., "Guided Munitions", Armada International, 1 April 2007; Dullum, O., "Cluster weapons – military utility and alternatives", Norwegian Defence Research Establishment (FFI), 1 February 2008, available at www.ffi.no/no/Rapporter/07-02345.pdf, last viewed 27 August 2013.
- 102 Research by Facing Finance at IDEX 2013, February 2013, Abu Dhabi.
- 103 Splav, "Grad", *Splav* website (www.splav.org/en/arms/grad/index.asp), viewed 20 August 2013; Splav, "Grad-1", *Splav* website (www.splav.org/en/arms/grad1/index.asp), viewed 20 August 2013.
- 104 Splav, "Uragan", *Splav* website (www.splav.org/en/arms/uragan/m27k.asp), viewed 20 August 2013.
- 105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06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07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22040109", 21 June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08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09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22040109", 21 June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10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11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12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284788109", 21 February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13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22040109", 21 June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 114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15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16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17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49435109", 29 September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18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19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20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21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22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208253109", 6 August 2010,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23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284788109", 21 February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24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22040109", 21 June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25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26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27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28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Thomson ONE database, "Tearsheet 2478115109", 12 December 2012,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29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Thomson ONE database, "Tearsheet 2518758109", 3 May 2013,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30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3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32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284788109", 21 February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33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22040109", 21 June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34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Thomson ONE database, "Tearsheet 2518758109", 3 May 2013,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35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208253109", 6 August 2010,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36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284788109", 21 February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37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22040109", 21 June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38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39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40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Thomson ONE database, "Tearsheet 2478115109", 12 December 2012,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41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Thomson ONE database, "Tearsheet 2518758109", 3 May 2013,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42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43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44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208253109", 6 August 2010,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 145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284788109", 21 February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46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22040109", 21 June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47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49435109", 29 September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48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49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50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51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Thomson ONE database, "Tearsheet 2518758109", 3 May 2013,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52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53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54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15631109", 26 May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55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22040109", 21 June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56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49435109", 29 September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57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58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59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Thomson ONE database, "Tearsheet 2478115109", 12 December 2012,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60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Thomson ONE database, "Tearsheet 2518758109", 3 May 2013,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61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208253109", 6 August 2010,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62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284788109", 21 February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63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22040109", 21 June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64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65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66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67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Thomson ONE database, "Tearsheet 2478115109", 12 December 2012,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68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Thomson ONE database, "Tearsheet 2518758109", 3 May 2013,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69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70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7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72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73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74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75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76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 177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208253109", 6 August 2010,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78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284788109", 21 February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79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80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81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284788109", 21 February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82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15631109", 26 May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83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22040109", 21 June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84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85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86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87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88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Thomson ONE database, "Tearsheet 2478115109", 12 December 2012,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89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Thomson ONE database, "Tearsheet 2518758109", 3 May 2013,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90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9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92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93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15631109", 26 May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94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95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Thomson ONE database, "Tearsheet 2478115109", 12 December 2012,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96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197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208253109", 6 August 2010,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198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199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200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284788109", 21 February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201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15631109", 26 May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202 Thomson ONE database, "Tear Sheet 2322040109", 21 June 2011,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 203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204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205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206 *Bloomberg* database (www.bloomberg.com), viewed September 2013.
- 207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208 *Thomson ONE* database (www.thomsonone.com), viewed September 2013.
- 209 Definition taken from Investopedia (www.investopedia.com), viewed 30 September 2013.

-
- 210 Fonds de Compensation, "Présentation", *Fonds de Compensation* website (www.fdc.lu/organisation-et-gouvernance/presentation/), viewed 30 September 2013.
- 211 Fonds de Compensation, written response to *FairFin* dated 24 April 2012.
- 212 Landmine and Cluster Munition Monitor, "Luxemburg: Cluster Munition Ban Policy", available at www.the-monitor.org/index.php/cp/display/region_profiles/theme/2803#_ftn23, last viewed 9 October 2013.
- 213 Fonds de Compensation, "Investissement socialement responsabl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onds de Compensation* website (www.fdc.lu/strategie-dinvestissement/investissement-socialement-responsable/), viewed 30 September 2013.
- 214 Fonds de Compensation, "Liste d'exclusion du FDC" ("FDC's Exclusion List"), 31 August 2013, available at www.fdc.lu/fileadmin/file/fdc/Organisation/Liste_d_exclusion_20130926.pdf, last viewed 30 September 2013.
- 215 The Future Fund, "About Us", *The Future Fund* website (www.futurefund.gov.au/), viewed 7 October 2013.
- 216 The Future Fund, "Statement of Investment Policies", February 2012, p. 25, available at www.futurefund.gov.au/investment/investment_policies, last viewed 7 October 2013.
- 217 Senate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Legislation Committee, "Answers to Questions on Notice. Budget Estimates 2011 – 2012", Finance and Deregulation Portfolio, available at 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Senate_Committees?url=fapa_ctte/estimates/bud_112/finance/f33.pdf, last viewed 26 April 2012.
- 218 The Future Fund, "Excluded companies", June 2013, available at www.futurefund.gov.au/_data/assets/pdf_file/0011/5105/2013_June_excluded_companies_list_A309503.pdf?mode=results&queries_field_query=cluster, last viewed 7 October 2013.
- 219 NPRF, "Home", *NPRF* website (www.nprf.ie/home.html), viewed 10 October 2013.
- 220 NPRF, written response to *Netwerk Vlaanderen* dated 30 July 2009.
- 221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Commission,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2", p. 34, available at www.nprf.ie/Publications/2013/AnnualReport2012.pdf, last viewed 30 September 2013.
- 222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Introduction to Guardians and Fund", p. 5, 8, available at www.nzsuperfund.co.nz/files/Introducing%20Guardians%20and%20Fund.pdf, last viewed 30 September 2013.
- 223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Background Paper on Cluster Munitions and Investments", available at www.nzsuperfund.co.nz/files/Guardians%20Background%20Paper%20on%20Cluster%20Munitions%20_4%20April%202008_.pdf, last viewed 30 September 2013.
- 224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Exclusion Decisions",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website (www.nzsuperfund.co.nz/index.asp?pageID=2145883153), viewed 30 September 2013.
- 225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Full list of all GNZS Exclusions as at 31 May 2013", available at www.nzsuperfund.co.nz/index.asp?pageID=2145883153, last viewed 30 September 2013.
- 226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excludes nuclear base operators", 10 June 2013, available at www.nzsuperfund.co.nz/news.asp?pageID=2145831983&RefID=2141743018, last viewed 30 September 2013.
- 227 Ministry of Finance, "The Government Pension Fund", *Ministry of Finance* website (www.regjeringen.no/en/dep/fin/Selected-topics/The-Government-Pension-Fund.html?id=1441), viewed 30 September 2013.
- 228 Norwegian Government, "Guidelines for the Observation and Exclusion of Companies from the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s Investment Universe", *Norwegian Government* website (www.regjeringen.no/en/sub/styrer-rad-utvalg/ethics_council/ethical-guidelines.html?id=425277), viewed 30 September 2013.
- 229 Council on Ethics for the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Recommendation on Exclusion of Cluster Weapons from the Government Petroleum Fund", 16 June 2005, available at www.regjeringen.no/en/dep/fin/Selected-topics/The-Government-Pension-Fund/Ethical-Guidelines-for-the-Government-Pension-Fund---Global-/Recommendations-and-Letters-from-the-Advisory-Council-on-Ethics/recommendation-on-exclusion-of-cluster-w.html?id=419583, last viewed 30 September 2013.

-
- 230 Council on Ethics for the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Recommendation on the Exclusion of the Company Textron Inc.", 26 August 2008, available at www.regjeringen.no/upload/FIN/etikkk/textron.pdf, last viewed 30 September 2013.
- 231 Ministry of Finance, "Companies Excluded from the Investment Universe", *Ministry of Finance* website (www.regjeringen.no/en/dep/fin/Selected-topics/the-government-pension-fund/responsible-investments/companies-excluded-from-the-investment-u.html?id=447122), viewed 30 September 2013.
- 232 Ministry of Finance, "Thales SA and DRD Gold Limited to be Reinstated in the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s Portfolio", 3 September 2009, available at www.regjeringen.no/en/dep/fin/press-center/Press-releases/2009/thales-sa-and-drd-gold-limited-to-be-rei.html?id=575442, last viewed 30 September 2013.
- 233 Ministry of Finance, "Tobacco Compan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15 March 2011, available at www.regjeringen.no/mobil/en/dep/fin/News/news/2011/one-company-excluded-from-the-government.html?id=635913, last viewed 30 September 2013.
- 234 Council on Ethics for the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exclusion of Alliant Techsystems Inc. from the investment universe of the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2 May 2013, available at www.regjeringen.no/pages/38433495/atk_e.pdf, last viewed 30 September 2013; Council on Ethics for the Government Pension Fund - Global,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exclusion of Lockheed Martin Corp. from the investment universe of the Norwegian 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13 June 2013, available at www.regjeringen.no/pages/38433495/lm_e.pdf, last viewed 30 September 2013.
- 235 Ministry of Finance, "Companies Excluded from the Investment Universe", *Ministry of Finance* website (www.regjeringen.no/en/dep/fin/Selected-topics/the-government-pension-fund/responsible-investments/companies-excluded-from-the-investment-u.html?id=447122), viewed 30 September 2013.
- 236 AP1, "Operating goals and government evaluation", *AP1* website (www.ap1.se/en/About-AP1/Operating-goals), viewed 30 September 2013.
- 237 Second Swedish National Pension Fund/AP2, "Annual Report 2011", p. 29, available at www.ap2.se/en/Financial-information/financial-reports/, last viewed 30 September 2013.
- 238 The Ethical Council, "Annual Report 2008", p. 18, available at www.ap4.se/upload/Etikr%C3%A5det/Etikr%C3%A5det%20ENG/Etikradet_Arsrapport_2008_Eng.pdf, last viewed 30 September 2013.
- 239 AP4, "Companies excluded from AP4's investment universe", *AP4* website (www.ap4.se/web/templates/Page.aspx?id=803), viewed 7 October 2013.
- 240 AP1, "The Swedish Pension System", *AP1* website (www.ap1.se/en/About-AP1/History-of-the-AP-funds/), viewed 30 September 2013.
- 241 Cobley, M., "Swedish Scheme Joins Movement Against Cluster-Bombs", 2 June 2008, *Financial News Online*, available at www.efinancialnews.com/story/2008-06-02/swedish-scheme-joins-movement-against-cluster-bombs, last viewed 12 April 2012.
- 242 AP7, "Årsredovisning 2012" ("Annual Report 2012"), p.9, available at www.ap7.se/Documents/PDF/Rapporter/AP7_%c3%85R_2012.pdf, last viewed 7 October 2013.



IKV PAX CHRISTI

IKV Pax Christi works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justice in the world. We join with people in conflict areas to build a peaceful and democratic society. We enlist the aid of people in the Netherlands who, like IKV Pax Christi, want to work for political solutions to crises and armed conflicts. IKV Pax Christi combines knowledge, energy and people to attain one single objective: there must be peace!

IKV Pax Christi is the largest peace organization in The Netherlands and works in around 15 countries. IKV Pax Christi is a founding member of the Cluster Munition Coalition (CMC).